Life p/16
오늘부터 블랙프라이데이

metro®
메트로 2015년 10월 1일 목요일 제3311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9일>

코스피 1962.81 (+19.96)

코스닥 678.48 (–4.22)

금리(국고채 3년) 1.57 (–0.05)

환율(원·달러) 1181.50 (–12.50)

최저임금 안주는 편의점

본사 "알바 임금은 가맹점 권한, 본사는 교육만 할 뿐"
점주 "회사 이미지 실추… 예방위해 본사가 나서야"

진주시 K대학에 다니는 김 모양은 편의점 'GS25'에서 시급 5000원을 받고 일한다. 하루 7시간 주 5일을 근무해서 김 양이 받는 월급은 70만원 수준. 김양은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에 못 미치는 돈으로 일하고 있다.

왜 신고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양은 "5000원이면 많이 받는 것이다. 이 근처는 대부분 4600원 정도 받는다. 사실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지만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여전히 많지만 편의점 본사가 '나몰라라'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마저도 일자리를 뺏길까봐 고용노동부에 신고조차 못하고 있다.

실제 K대학 근처의 편의점 10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6곳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신고된 것은 1240건에 달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인 알바노조알바연대(이하 알바연대)의 2014년 아르바이트 상담 통계를 보면 총 416건의 상담 중 25.2%, 105건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상담이다.

알바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상담건수일 뿐 최저임금 위반건은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1240건의 10배 이상 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 아르바이트생은 "당장 우리 지역에서만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 1200명을 모을 수 있다"며 "학생은 최하위 '을' 위치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 편의점, PC방에서 일하는 학생 중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CU, GS25 등 편의점 본사들은 가맹점 수 늘리기 경쟁만 할 뿐 최저임금에는 어떠한 대책도 갖고 있지 않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본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편의점 본사는 각 가맹점의 최저임금 위반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편의점 기업들은 또 점주의 수익은 보장하지만 고용된 알바는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측은 "(최저임금 보장은) 권한 밖의 일이다. 점주를 향해 알바의 임금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교육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 관계자는 "수시로 최저임금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가맹점주의 권한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권고뿐이다"고 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본사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한 가맹점주는 "고용노동부는 신고에 대해 처벌을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편의점 본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가맹점주의 양심에만 맡기기엔 피해자가 너무 많다"며 "결국은 CU, GS25 등의 회사의 이미지에 금이 가는 것이다. 본사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거는 만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스무살 맞은 BIFF 화려한 막 오른다

오늘부터 10일까지 75개국 304편 상영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1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스무 살이 된 부산국제영화제의 올해 주제는 '아시아 영화의 현재와 미래의 만남'이다.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총 75개국에서 온 304편의 영화가 6개 극장 35개 스크린에서 상영된다.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은 94편(장편 70편·단편 24편), 자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첫 상영되는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작품은 27편(장편 24편·단편 3편)이다. 영화제는 10일까지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남포동 일대에서 열린다.

1일 오후 7시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아시아 대표 감독, 배우들이 대거 참석한다. 갈라 프레젠테이션에 초청된 '자객 섭은낭'의 허우 샤오시엔 감독과 배우 장첸, '산하고인'의 지아장커 감독과 배우 자오 타오, '핑크와 그레이'의 유키사다 이사오 감독과 배우 나카지마 유토·스다 마사키 등이 개막식 참석을 확정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단골손님인 탕웨이도 영화 '세 도시 이야기'를 들고 개막식을 찾는다. 남편인 김태용 감독은 뉴커런츠 부문 심사위원으로 개막식 레드카펫을 밟는다.

개막작으로는 인도 영화 '주바안'이 상영된다.

영화제 기간에는 해외 스타들의 방문이 예정돼 있다. 할리우드 명배우 하비 케이틀과 프랑스 대표 배우 소피 마르소는 각각 초청작 '유스'와 '제일버드'로 부산을 찾는다. 독일 출신 배우 나스타샤 킨스키는 뉴커런츠 심사위원으로 영화제 동안 부산에 머무른다.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가와세 나오미 감독, 프랑스의 레오스 카락스 감독 등도 영화제 기간에 마스터클래스와 오픈토크, 아주담담 등의 행사로 관객과 만날 계획이다.

/장병호 기자 solanin@

본사 인사

대표이사·편집국장 이 장 규

New Iphone breaks the record

새 아이폰 판매 신기록 경신

Iphone is taking over the global smartphone market again. Apple is gaining in influence thanks to the rise in sales of Iphone 6s and 6s plus.

There is a growing concern from LG and Samsung since they have to compete with this giant company in a premium smartphone market.

only one week after their release date, apple sold 13 million Iphone 6S and 6S plus across America, Australia, Japan, Singapore, China,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Apple has broken the record for number of sales in the first week of being released.

In 2012, the first week end of commercialisation apple sold 4 million Iphone 4S sold, 9 million Iphone 5S and 5C in 2013, and 10 million Iphone 6 and 6 plus in 2014.

Everytime a new Iphone is released, Apple reveal the first week end sales numbers (Friday to Sunday)

Apple's CEO Tim Cook says it's marvelious and he is very satisfied with the Iphone 6S and 6S plus's sales.

애플이 또 다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신제품 아이폰 6s·6s플러스가 날개 돋친 듯 팔리며 변함없는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상대로 버거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애플은 28일(이하 현지시간) 아이폰 6s·6s플러스가 발매 첫 주말(25~27일)에 1300만여대가 팔렸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호주·일본·싱가포르·중국·독일·영국 등 1차 출시국 12개 지역의 판매 실적을 합산한 결과다.

아이폰 6s·6s플러스는 애플의 스마트폰 출시 첫 주말 판매량 신기록을 갈아 치웠다. 신제품 아이폰의 첫 주말 판매량은 2012년 아이폰 4s 400만대, 2013년 아이폰 5s·5c 900만대, 2014년 아이폰 6·6플러스 1000만대였다. 애플은 최근 수년간 새 아이폰이 발매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첫 사흘간 실적을 '첫 주말 판매량'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경이적"이라며 아이폰 6s·6s플러스의 초기 판매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미국의 국방안보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남한에 대한 북한의 최대 위협은 서울을 노리는 포격이라며 포탄 형태의 소형화된 핵무기가 서울을 공격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 독일자동차 **폴크스바겐**이 스페인 계열사 세아트를 비롯해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차량 1100만대를 수리하기 위해 리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본인** 남성 2명이 중국에서 스파이(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돼 수개월 동안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일본인 구금 사실을 확인했다.

▲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고속철도 수주전**에서 중국이 일본의 신칸센을 밀어내고 역전승을 거두었다. 파격적인 융자 조건과 정부 차원의 판매 공세가 낳은 결과로 분석된다.

정치·사회

▲
청와대는 3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합의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합의에 대해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공천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이 30일 오전 비공개 석상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달 중순으로 추진했던 중국 방문 계획을 30일 취소했다.

▲ 야권 내에서 '친노(친노무현)진영과 비노(비노무현)진영'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런 대결 프레임을 넘어서 탈노(脫盧·탈노무현)를 표방하는 전문가 포럼 **'국민공감'**이 30일 출범했다.

▲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대**가 법인화된 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31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교직원에게 240억원에 달하는 1회성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이에 따른 이자의 사회환원을 위해 설립된 **'스마트교통복지재단'** 구조개선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5일부터 기금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 20대 **'늦깍이 중고등학생'**도 내달부터는 청소년 할인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 25일 공소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석채(70) 전 KT회장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A고교 교사 B씨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정운호**(50)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30일 강원 춘천시 동산면의 한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예방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모바일 **'페이 전쟁'**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워치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 축인 삼성전자와 애플은 물론 중국 정보기술(IT) 업체들까지 손목 위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 LG전자가 구글과 합작한 '안드로이드 6.0(마시멜로)'이 첫 적용된 넥서스폰 '넥서스 5X'에 이어 렌즈가 2개 달린 듀얼카메라와 보조 화면이 달린 **슈퍼 프리미엄폰**을 공개한다. 스마트폰 최대 성수기인 4분기를 맞아 중저가부터 프리미엄 모델까지 전략 스마트폰 라인업을 공개하며, 삼성의 갤럭시 노트5와 애플의 아이폰6S 시리즈에 대항할 모델로 반격에 나선다.

▲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파장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국내에서 시판된 모든 차종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소비자 소송도 처음으로 제기됐다.

▲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에서 조사대상 140개 가운데 우리나라는 작년과 같은 26위를 기록했다.

▲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올해 **한국 성장률**은 13개 신흥국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브라질과 러시아 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포괄적인 약관조항을 악용해 고객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그동안 불합리하게 이뤄져온 관행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에 나섰다.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여전히 많지만 편의점 본사가 '나몰라라'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마저도 일자리를 뺏길까봐 고용노동부에 신고조차 못하고 있다.

▲ 스무 살이 된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10일 동안 펼쳐지는 축제의 화려한 막을 1일 올린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제는 '아시아 영화의 현재와 미래의 만남'이다.

美 싱크탱크 "北, 서울에 핵포탄 날릴 수 있어"

휴전선 포격위기 2일전 예언

6·25식 무력충돌 가능성 ↓

향후 최대 위험, 무차별 포격

핵포탄 개발시 수도 사정권에

2010년 연평 포격전 당시 해병대 연평부대 K-9 진지가 적 포탄 공격을 받아 화염에 휩싸인 가운데, 해병대원이 대응 사격준비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미국의 국방안보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가 최근 낸 보고서에서 남한에 대한 북한의 최대 위협은 서울을 노리는 포격이라며 포탄 형태의 소형화된 핵무기가 서울을 공격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지난달 북한의 휴전선 포격 도발 이틀 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29일(현지시간)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이 연구소의 티머시 본즈 연구원 등은 지난달 18일 백악관 산하 자문기구인 미래군사위원회(NCFA)에 제출한 '후회 최소화하기: 우리에게 필요한 육군 만들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지상군과 공군력의 지원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전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6·25전쟁과 같은) 침략은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과의 무력충돌은 위기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에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한이 오랫동안 북한의 포격 위협 하에서 살아오기는 했지만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고 했다. 본즈 연구원은 그 근거로 북한이 장거리 포병과 다연장 로켓 전력을 증강하고 있고, 최근 들어 실제 남한 영토를 향해 포격을 가했으며, 핵개발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로 좀 더 도발적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포격이 시작되면 남한은 서울 인구를 대규모로 소개시켜야 하고, 서울 시민들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포병전력을 50~100km 후퇴시키거나 전력 자체를 영구히 제거해야 한다"며 "미국과 남한의 공군과 미사일이 포격의 빈도를 줄일 수는 있지만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는 한 북한 포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1956년 개발한 W-33과 같은 포탄 형태의 소형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며 "8인치 크기로 10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이 포탄이 개발될 경우 서울은 북한 포병에 의해 핵공격 사정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즈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1만3000여 문의 포와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000문 정도를 휴전선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의 지하벙커 등에 배치해놓은 상태다.

본즈 연구원의 보고서는 미국의 지상군 감축을 비판하는 시각에서 작성됐다. 그는 북한이 서울을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감행할 경우 지상군을 투입해 북한의 포격 진지를 점령하지 않는 한 위협을 제거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한 지상군 증강을 주장했다. 북한의 포격 위협을 이유로 지상군 증강을 주장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의 보고서가 나온지 이틀 만에 휴전선에서 포격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고서의 경고를 평가절하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인도네시아 고속철 수주전, 중국 역전승

일본 신칸센 밀어내고 차지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고속철도 수주전에서 중국이 일본의 신칸센을 밀어내고 역전승을 거두었다. 파격적인 융자 조건과 정부 차원의 판매 공세가 낳은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은 최대 경제 원조 상대국이자 세계 유수의 친일국가에서 중국에 패배하자 정계, 관계, 재계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인프라 수출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신칸센의 해외 수출에 힘을 쏟은 아베 신조 정권은 이날 패배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빠진 나머지 인도네시아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측에 "대단히 유감이라는 의사를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확실히 전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조코 대통령을 일본에 초청해 신칸센 탑승을 권하는 등 정상세일즈를 벌인 바 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에 '사업비 전액 융자', '인도네시아 정부의 채무보증은 필요 없다' 등의 통 큰 제안을 연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자카르타의 쇼핑몰에서 중국의 고속철도 '허셰호'의 모형 전시회를 개최하고, 화려하게 차려 입은 여성 승무원들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다.

일본은 고품질 전략으로 일관했다. 교도통신은 고속철도의 건설과 운행, 차량 제조 등의 주요 사업을 국유기업이 담당하고 채산성을 도외시하며 해외사업 수주 획득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에게는 일본의 전략이 통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제조업의 해외 진출을 국가 전략으로 제시, 고속철도를 원전 등과 나란히 수출의 중점 분야로 제정했다. 교도통신은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고속철도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조코 대통령의 구상을 중국 측이 능숙하게 반영하며 일본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송병형 기자

중국, 일본인 2명 간첩 혐의로 체포

랴오닝성·저장성서 구속

일본인 남성 2명이 중국에서 스파이(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돼 수개월 동안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일본인 구금 사실을 확인했다. 역사 문제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양국관계에 또하나의 악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과 저장성에서 여행중이던 일본 국적의 민간인 남성 2명이 지난 5월 스파이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

일본인이 스파이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된 사건은 지난 2010년 9월에도 있었다. 당시 일본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일본인 4명이 허베이성의 군사 통제 지역에 들어가 영상 촬영을 하다 구속됐다.

당시만 해도 붙잡힌 지 20일 안에 4명 전원이 석방됐지만, 이번에는 구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중국 당국이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국민 보호의 관점에서 재외공관에서 적절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뒤 '중국에 구속된 2명이 민간인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스가 장관은 또 스파이를 중국에 보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은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해외 반중국 세력의 유입을 경계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스파이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반간첩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올해는 국가안전법을 제정했다.

/송병형 기자

폴크스바겐, 1100만대 사상 최대 리콜

독일자동차 폴크스바겐이 스페인 계열사 세아트를 비롯해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차량 1100만대를 수리하기 위해 리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 일본의 도요타가 가속페달 결함으로 1000만여 대를 리콜한 것을 넘어서는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 눈속임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차주에 대해 수일 내로 수리 계획을 알릴 계획이다.

폴크스바겐은 10월 7일까지 독일 당국에 사태 수습 방안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뒤 차량 수리에 착수한다. 폴크스바겐은 결함 차량 차주가 정비소를 찾아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각국 언어로 웹사이트를 개설해 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 눈속임 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수리 과정을 거치면 당국의 규제에 맞게 되는지, 주행거리나 연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폴크스바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65억 유로(8조6000억원)의 충당금을 쌓아뒀지만 벌금과 수리비용, 소비자들의 소송까지 감안하면 이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비 등에 문제가 없도록 정교한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당 수천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차량수리에만 200억 달러(23조원)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미국 CBS방송이 보도했다.

/송시우 기자 swsong@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대표이사 편집국장	이장규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유승민 다음 타깃 김무성?… 현실화 되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파문 확산

민심 왜곡·조직선거 우려 등
靑, 朴 대통령 귀국 하자 비판
金 "오늘까지만 참겠다" 경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학재 정치개혁특위 간사의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김 대표는 청와대의 공개적인 비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당 대표를 모욕하면 되겠나.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를 두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유승민 찍어내기' 정국 당시 정치권에 떠돌던 '유승민 다음은 김무성'이라는 말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30일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김 대표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공천 ▲전화 여론조사의 낮은 응답률 ▲당 내부논의 생략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으며 응답률이 미미한 전화조사의 한계상 조직 동원력이 큰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공천의 관리 주체가 되면 '세금공천'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고 본질적으로 전화조사와 현장투표가 반영하는 여론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당초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유엔 방문 중에 합의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이를 둘러싼 당내 분란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오가는 얘기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3시간여 만에 청와대의 입장이 '거리두기'에서 공개적으로 '확고한 반대'로 급선회한 것이다. 총선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 형식을 취했지만 미리 준비된 '작심 비판'이었던 데다 대통령 보고 없이 청와대 입장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사실상 박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공개적인 비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당 대표를 모욕하면 되겠나.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아주 노력하고 있다"며 자신이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얘기한 5가지 중 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여론조사 응답률 2%, 이것 한 가지만 맞았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낭비 등의 우려에 대해 대부분 틀렸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안심번호는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지 공천에 대한 룰이 아니다. 청와대랑 논의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에 압승을 거두며 당대표에 선출된 이후 정치생명을 걸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일각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청와대의 입김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며 당청갈등은 예고된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의원징계안 빨리 처리하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성명
3년간 고작 1건 처리 그쳐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징계가 지난 3년간 국회 윤리특위에서 처리된 유일한 안건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손태규 위원장은 30일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돼 있는 24건의 의원 징계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문위는 제19대 국회 기간 중에 34건의 의원 징계안을 심사·의결해 윤리특위에 최종의견을 제시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윤리특위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심학봉 의원 징계안 1건에 불과했다"며 징계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손 위원장은 "자문위는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 심사의견을 윤리특위에 보낼 때 계류된 다른 징계안도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9월에 열린 윤리특위 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만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가 윤리특위에 징계의견서를 제출한 34건가운데 징계안 철회 또는 대상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으로 윤리특위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9건과 심학봉 의원 징계안을 제외하면 현재 24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위는 모든 징계안마다 신중하고 치열한 검토 끝에 징계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사실상 사장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지켜보면서 자문위원은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깊이 회의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징계안에는 성폭행 피해 입은 부사관에게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대리운전 기사에게 반말 폭언을 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 등 24건이 있다. /송병형 기자

문재인 "청와대가 끼어드는 것 도저히 납득 안돼"

"靑, 공천권 쥐려고하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 "청와대가 끼어들어 '되니 안되니' 말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공천권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청와대가 왜 딴지를 걸고 나서는지 그 영문을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만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문 대표는 "안심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제안한 제도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하게되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비해서 동원경선의 폐단도 없애고 또 경비도 훨씬 절감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도입의 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송병형 기자

정의당 "靑, 총선에서 자기사람 챙기려는 것"

정의당은 30일 청와대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이는 총선에서 제 사람 챙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추석 연휴 회동이 그 형식·과정·내용면에서 부적절하고 비판받을 지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청와대가 국회의 고유 업무에 멋대로 개입해서 감놔라 배놔라 할 문제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는 병풍 뒤에 숨어 정치판을 좌지우지 하려는 박 대통령의 속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의 아킬레스건을 노리고 '그림자 자객' 흉내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한다. 아무리 못난 여당이라도 청와대의 개입이 정당화 되는 건 아니다"며 "청와대 고위 인사가 관계자라는 탈을 쓰고 입법부의 일에 간섭하려는 모습은 너무도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는 국민들은 민망하다"며 "더 이상 자신들의 밥그릇에 목매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에 눈과 귀를 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대통령의 정치는 이미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며 "지금 대통령이 시선을 둬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민생에 시름하는 국민들의 삶"이라고 덧붙였다. /송병형 기자

전반 이어 후반에도 '정치 국감' 재연되나

법조계 국감 김무성 핵심겨냥
정치적 공방에 취지훼손 우려

10월 1일부터 2015년 후반기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되는 가운데 전반에 이어 후반도 '정치 국감'이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 국감은 간 데 없고 정치적 공방만 남아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재개한 국감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집행연기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 박근혜 대통령 사촌형부 등 정치적 성격을 함의한 쟁점들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지검, 지법, 대검찰청, 대법원에 대한 후반기 국감 재개를 하루 앞둔 30일 법조계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마약 사위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김 대표의 차녀가 일각에서 제기된 제3자 마약설과 관련 검찰 조사를 자처하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당시 김 대표 사위의 사건을 맡은 최교일(53) 변호사는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관예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로 비화된 자원개발비리 수사도 쟁점이다. 반년을 이끌어온 자원외교 비리수사가 최근 독단적 투자라는 결론으로 일단락되면서 자원외교의 허상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실투자의 책임을 물으려 했던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의 자살로 수사 동력을 상실하기도 했다. 부정부패를 내걸었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이 사건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대법원 등에선 상고법원 설치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법부 최대 이슈지만 당사자인 법원을 제외하면 공감도가 크지 않아 대법원의 필요성 호소가 관건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단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법리 판단에 대해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폐지 논란이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이다. 2017년 전면 폐지를 앞둔 사시는 지난 24일 제57회 시험에서 2차 합격자 152명을 배출했다. 사시 존폐와 관련,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올린 법안들은 줄줄이 계류되고, 사시준비생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을 신청해 사시존치를 역설, 논란이 가열된 만큼 종합감사가 이뤄지는 8일까지 적어도 한차례 더 언급될 거란 관측이 많다.

이밖에 전반기 국감에서 쟁점으로 언급된 박 대통령의 사촌형부 검찰 수사와 여야 동료 의원들의 검찰 조사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또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국감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 대부분이 여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올해도 정책은 간 데 없고 정치 국감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절정의 코스모스 전남 곡성군은 30일 전남 곡성군 석곡면 대황강자연휴식공원에서 열린 '제15회 석곡코스모스음악회'가 지난 27일 2만여명의 관광객·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남 곡성군 제공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혼인파탄 책임"

法 "위자료 5000만원 줘야"

고압적이고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법원 관결이 나왔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클럽에서 만나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면서 혼인신고는 미뤘다. A씨는 결혼 전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로 B씨를 힘들게 했다. 6개월쯤 지난 어느날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와 부부관계를 하려다 B씨가 거부하며 도망치자 속옷만 입은 채로 따라나갔다. 이날 B씨는 실신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A씨의 상태는 더 심해져 부부관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는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요구했고, B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음에도 줄기차게 요구했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못 돼 둘은 완전히 별거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우울증을 숨겼고 결혼 뒤에도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며 자신이 쓴 신혼여행 경비와 주거비 등 3300여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맞소송을 내면서 B씨는 A씨에게 혼수와 예단 등에 쓴 비용 합계 5200여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봤다.

1심은 "원고는 피고가 원치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결혼식과 예단 비용, 주거비 등을 돌려달라는 양쪽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으로 양쪽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자금 횡령' 유병언 측근 징역형 판결

회삿돈으로 유씨 일가 지원
4명 모두 2년 이상 원심 확정

회삿돈을 빼돌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측근 4명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동생 병호씨에게 징역 2년, 변기춘 천해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창환 세모 대표와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도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청해진 해운 관계사의 대표나 임원으로 일하면서 컨설팅 비용이나 사진값 명목 등으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유씨 일가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의 아들이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지원하고, 유씨의 사진전 비용을 충당하려고 그가 찍은 사진을 거액에 구입하거나 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이었다.

1심은 병호씨에게 징역 2년, 고씨와 오씨에게 징역 3년, 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병호씨에게는 징역 2년을 그대로 선고했지만, 나머지 측근들은 배임액 계산이 일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고씨는 징역 2년6월, 변씨는 징역 3년, 오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연미란 기자

기초연금 수급자 10만명 늘어난다

소득환산율 4%로 낮춰
장애인연금도 1500명 ↑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최대 10만명,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최대 1500명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며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일정 비율을 말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각각 연금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연금 수급대상자를 가려내고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인하 조치는 환산 과정에서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미란 기자

학원가 불공정 행위 만연 '소비자 피해주의보'

공정위, 신고센터 운영 시정명령·과징금 제재키로

허위·과장광고,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부당광고를 일삼는 학원가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선다.

공정위는 30일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부당광고 등 학원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부당광고와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통신판매업자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중도 해지시 환불 거부 등의 기타 불공정행위 등이 있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로 신고를 할 수 있다.

학원비 피해 등 불법 사교육행위 전반에 대해선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est.go.kr)'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학원비 환불 거부 등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알렸다.

직접 경쟁업체명이나 교재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학습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특징을 활용해 중상·비방하는 경우를 부당광고의 예로 들었다.

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강의 교재에 대한 청약철회(반품요청 등)에 대해 반품 배송비 이외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오프라인 강의에 온라인 강의를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행위도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수강료 환불 요구시 학원법상 수강료 반환기준을 확인할 것과 학원에 게시된 등록증 등을 통해 적법하게 등록한 학원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국 단일 상담망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檢, 'KT&G 비리 의혹' 부사장 수사 돌입

KT&G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이 회사의 차기 사장 후보인 백복인(51) 부사장이 비리에 연루된 단서를 잡고 수사에 돌입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백 부사장은 지난 7월 퇴진한 민영진 전 사장의 측근으로 다음 달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KT&G에서 사장 후보로 추천됐다.

백 부사장은 경찰이 2013년 수사했던 KT&G의 남대문 부지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이 있다. KT&G가 사업 추진을 위해 끌어들인 용역업체 N사에 과도한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경찰은 N사 대표 강모씨의 허위진술을 종용하고 해외로 도피시켜준 혐의로 백 부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2010년 KT&G가 청주시에 연초제조창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사건에 백 부사장이 연루돼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리는 청주시가 KT&G의 요구액에 가깝게 매각 가격을 매겨주는 대가로 청주시 공무원에게 금품이 건네진 사건이다. 최근 검찰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KT&G 관계자는 "백 부사장은 청주 부지 매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범인도피 혐의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면서 "사장 후보 선임 과정에서 자질과 도덕성을 충분히 검증했다"고 백 후보자에 대한 신뢰에는 변함이 없음을 드러냈다.

/연미란 기자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 30일 서울 중구 청계천 광교갤러리에서 열린 청계천 복원 10주년 기념 시민사진전 및 복원 전·후 사진전시회에서 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처남 취업청탁 의혹' 문희상, 서면조사서 제출

분석 후 소환 여부 검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과 관련,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해 답변서를 제출했다.

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이달 11일 문 의원 측에 발송한 서면조사서에 대한 답변서를 23일 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이 끝나는대로 검찰은 문 의원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고교 후배인 조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을 미국 회사인 브릿지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처남은 이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12년까지 급여 74만7000달러(약 8억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면 조사서에서 문 의원에게 처남이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적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지만 문 의원 측은 그동안의 입장처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은 이달 초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당시 처남이 제 처에게 대한항공에 납품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처가 대한항공 인사와 친분이 있는 제 지인에게 소개를 부탁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납품은 성사되지 않았고 취업을 청탁한 사실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문 의원의 처남과 부인을 조사한 데 이어 조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쳤다.

/연미란 기자 actor@

"외국 취득 치과전문의, 국내서도 인정"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불인정은 평등권 침해"

외국 의료기관에서 수련하면 자격을 인정해주지않는 것은 평등권에 침해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18조 1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2016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정했다. 개정 때까지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만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했더라도 다시 국내에서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해 국내 실정에 맞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의사나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의사와 달리 치과전문의만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전문의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외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했다면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앞서 예비시험을 치르거나 별도 인정절차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다시 국내에서 1년 인턴, 3년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은 지나친 부담을 줘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성·강일원·김창종 재판관은 이 조항이 평등권 침해로 헌법 불합치라는 결론은 같이 했지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연미란 기자

'해외 원정도박 혐의' 정운호, 검찰 소환조사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정운호(50)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검찰에 소환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정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인 원정도박꾼들을 마카오 카지노 호텔 등지로 끌어들여 도박을 알선한 조직폭력배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범서방파' 계열 폭력조직의 소개로 마카오 카지노에서 100억원대 도박판을 벌였다. 검찰은 정 대표가 회삿돈을 빼내 도박자금으로 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판돈 규모와 출처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미란 기자

2015 House View

시장을 먼저 읽어라

달러자산에 투자하라。

달러를 이동하세요!

달러도 연 2.0% 수익률 (3개월 예치시, 세전, 2015.04.06기준, 달러가치 하락시 손실 발생 가능)

대신증권 달러RP 특별판매

대상: 개인고객(신규/기존)

한도: 개인별 1만$ ~ 50만$

수익률:연2.0% (기본수익률 연0.9% + 추가수익률 연1.1%)

*3개월 이후, 가입시점의 수시 RP이율 적용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D RP 입금액은 달러화 표시 외화증권에 투자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판매회사 지급불능시 증권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구분예탁된 유가증권(원금 105% 이상)을 보유 및 처분 가능) *USD RP는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D RP 수익률은 입금 시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수익률 변경 이전 매수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 매수시 약정한 수익률을 적용) *USD RP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USD RP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1588-4488)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943호 (2015-04-28 ~ 2016-04-27)

스마트워치로 확산되는 모바일 '페이전쟁'

삼성·애플, 결제 기능 탑재 간편성·범용성 관건으로

삼성 '기어S2'(왼쪽)와 애플의 '애플워치'. /삼성전자·애플 제공

모바일 '페이 전쟁'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워치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 축인 삼성전자와 애플은 물론 중국 정보기술(IT) 업체들까지 손목 위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30일 IT업계에 따르면 스마트워치에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기능이 잇달아 탑재되고 있다.

국내 업체 중에는 '삼성페이'를 앞세운 삼성전자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공개한 차세대 스마트워치 '기어S2'에 모바일 간편 결제 기능을 집어넣었다.

기어S2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의 삼성페이를 지원한다. 신용카드를 등록한 뒤 시계를 NFC 단말기에 갖다 대면 결제가 완료되는 시스템이다. 기어S2는 중국에서 알리페이를 지원하고, 교통카드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애플도 애플워치에 애플페이 기능을 탑재하고 간편 결제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애플워치 역시 기어S2와 같은 NFC 방식의 결제 단말기만을 지원한다. 중국 온라인 간편 결제시장 점유율 50%를 기록하고 있는 있는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를 탑재한 페이워치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목 위의 간편 결제 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이지만 NFC 단말기의 확산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의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단말기에서는 스마트워치로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NFC 결제 단말기 보급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ST와 NFC를 모두 지원하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갤럭시 노트5 등 일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된 삼성페이가 유일하다.

그러나 최근 마그네틱 방식의 신용카드가 IC카드로 대체되고 있어 NFC 단말기의 보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애플도 적극적으로 NFC 단말기 확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혜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의 성공 요건은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간편성과 범용성이다. 이같은 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이 NFC"라며 "비밀번호 입력, QR코드, 바코드 등의 방식은 결국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30일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판매사원이 김치냉장고 구매 고객들에게 2016년형 삼성 '지펠아삭'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 김치냉장고 보상판매 진행

한달동안 '고객사랑 대축제' 김장비 최대 50만원 지원도

삼성전자가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보다 좋은 혜택으로 김치냉장고를 구매할 수 있는 '김치냉장고 고객사랑 대축제'를 연다.

행사 기간 동안 2016년형 삼성 '지펠아삭'을 구매하고 브랜드 구분 없이 2도어 이상의 구형 김치냉장고를 반납하면 15만원의 보상 혜택을 제공하고 행사 모델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김장비를 지원해준다.

또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김치냉장고 구매를 상담 받으면 김장봉투, 일회용 장갑, 앞치마 등의 김장용품 세트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이 외에도 프로모션 기간 중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는 고객 중 30명을 추첨해 김치 명인이 직접 고객의 집으로 찾아가 일대일 김장 강습을 하고 김치냉장고의 활용법까지 알려주는 '김장 Personal Class'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김치냉장고를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김치통까지 메탈로 만든 메탈그라운드로 김치맛을 아삭하게 지켜주는 2016년형 삼성 '지펠아삭'과 함께 올해 김장을 더욱 맛있게 보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반격 카드 '슈퍼폰' 출격

50만원대 '넥서스5X' 이어 오늘 'V10' 韓·美 동시 공개 듀얼카메라·보조화면 눈길

LG전자 넥서스 5X.

24일 LG전자가 공개한 신제품 티저 이미지.

LG전자가 올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애플과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최대 스마트폰 성수기인 4분기를 맞아 중저가부터 프리미엄 모델까지 전략 스마트폰 라인업을 공개하고 삼성의 갤럭시 노트5와 애플의 아이폰6S 시리즈에 대항할 모델로 반격에 나선다.

지난달 30일 구글과 합작한 '안드로이드 6.0(마시멜로)'이 첫 적용된 넥서스폰 '넥서스 5X'를 선보인데 이어 1일 렌즈가 2개 달린 듀얼카메라와 보조 화면이 달린 슈퍼 프리미엄폰을 공개한다.

LG전자는 지난 4월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G4의 판매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업계에서는 LG의 휴대폰 사업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많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LG전자가 슈퍼폰으로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LG전자 휴대폰 사업을 이끌고 있는 조준호 사장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른다.

우선 LG전자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넥서스 5X'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제품은 5.2인치 풀HD 화면을 채용하는 등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는 반면 50만원대 가격으로 출시돼 주목받았다. 4K 영상 촬영이 가능한 1230만 화소 후면 카메라와 5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넥서스6P는 800만 화소), 충전 속도가 빠른 'USB C타입' 단자를 사용한 게 특징이다. 뒷면에 지문 인식 센서를 탑재해 '안드로이드 페이' 결제 기능을 지원한다. LG전자는 자체 결제 솔루션을 개발하지 않았지만 안드로이드 페이를 탑재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의 삼성페이와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됐다. 구글은 미국부터 순차적으로 '안드로이드 페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넥서스 5X'로 분위기를 잡았다면 LG전자가 G4의 부진을 씻기 위해 내놓은 반격 카드는 '슈퍼 프리미엄폰'이다.

LG전자는 1일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공개할 슈퍼 프리미엄폰은 지금까지 프로젝트명 'V10'으로 불리며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지만 LG가 최근 공개한 티저 영상에서 일부 특징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다. 우선 앞면에 카메라 2개를 달아 3D 촬영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또 메인 화면 위에 작은 화면을 따로 만들어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표시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G는 1일 오전 11시 서울 반포한강공원 세빛섬과 미국 뉴욕 링컨센터에서 각각 신제품 공개행사를 열고 조 사장은 서울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폴크스바겐 사태 일파만파…시판 전차종 확인

그룹 "신뢰유지 위해 최선" 7일까지 獨에 수습안 제출

국내 소비자 첫 소송 제기

폴크스바겐그룹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파장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국내에서 시판된 모든 차종에 대한 확인 작업이 예정된 가운데 소비자 소송도 처음으로 제기됐다.

폴크스바겐 티구안

30일 업계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코리아는 "그룹의 일원으로서 한국시장에서 시판 중인 모든 차종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며 "한국 내 모든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모든 조치를 할 것이며 우리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북미에서의 디젤 엔진 이슈는 그룹이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모든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룹은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사안을 숨김없이 밝히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정부기관과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폴크스바겐의 조작 의심 차량은 골프, 제타, 비틀, 파사트, 티구안, 폴로, CC, 시로코 등 8개 차종 약 11만대 규모다.

아우디의 경우 A3, A4, A5, A6, Q3, Q5 등 6개 차종 약 3만5000대 규모다.

국내에서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한 소송도 시작됐다.

소비자 2명이 이날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바른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리스 소비자 등을 포함, 원고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다.

폴크스바겐은 문제가 된 차량에 조만간 리콜을 통보할 예정이다.

수리 대상은 최대 1100만대로 개별 자동차회사의 리콜로는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토요타는 2010년 가속페달 결함으로 1000만여대를 리콜한 바 있다. 다카타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은 미국에서만 3380만여대지만 여러 업체에 걸쳐 이뤄졌다.

폴크스바겐은 10월 7일까지 독일 당국에 사태 수습 방안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뒤 차량 수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결함 차량 차주가 정비소를 찾아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각국 언어로 웹사이트를 개설해 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세한 리콜 방법 등을 밝히지 않고 있어, 배출가스 저감장치 수리가 오히려 연비 악화는 물론 성능 저하와 유지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희근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업계의 상황과 판도를 크게 흔들 수 있다"며 "테스트 규정과 환경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업계에 전반적인 비용 증가가 동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한진, 청년고용 앞장… 하반기 1000명 채용

'청년 20만 플러스 博' 참가 채용상담·현장면접 등 실시

한진그룹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20만 일자리 창출 정책에 동참한다.

한진그룹은 10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청년 20만 플러스 창조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는 한진그룹 계열사는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한진정보통신, 칼호텔네트워크, 토파스여행정보, 한진관광, 에어코리아 등 10개사다.

7개 협력사도 함께 참가할 예정이다.

한진그룹 참여 계열사들은 이번 박람회에서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에어코리아와 칼호텔네트워크(그랜드하얏트인천)는 현장 면접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진그룹 하반기 신규 채용 예정 인원은 대한항공 330명, 한진해운 20명, 한진 50명, 한국공항 70명, 진에어 135명 등 1000여명이다.

계열사별로 객실승무원, 지상조업, 항공정비, 여객운송 등의 직종에서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진그룹은 올해 전체 채용 계획을 연초 계획 대비 540여명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채용 확대를 통해 청년실업과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사측은 전했다.

/이정필 기자

30일 원효대교 남단 하부에 한화그룹이 조성한 불꽃계단이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대 계단벽화로 인증 받고 있다.

한화, 원효대교에 '불꽃계단' 조성

국내 최대 계단벽화 인증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탄생했다.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은 30일 원효대교 남단 하부에 있는 계단쉼터를, 서울을 상징하는 다양한 상징이 담긴 계단벽화로 재단장했다.

해당 불꽃계단은 세계 기네스북 등재를 대행하는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대 계단벽화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향후 더 많은 서울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한강의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사측은 기대했다.

/이정필 기자

대우조선해양

차세대 LNG선 2척 수주 17만3400㎥ 4780억 규모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이 추석연휴 동안 선박 2척을 수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싱가포르 선주사인 BW그룹으로부터 17만3400㎥(입방미터)급 천연가스 추진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선) 2척을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약 총액은 4억 달러(4780억원)다.

25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 (왼쪽)과 BW 그룹 카스텐 몰텐센 사장이 LNG선 건조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정 사장과 카스텐 몰텐센 BW그룹 CEO(최고경영자)가 참석했다.

이번에 계약한 선박은 길이 294.4m, 폭 46.4m규모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19년 상반기까지 고객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선박은 천연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차세대 LNG선이다.

만디젤의 가스분사식 엔진(ME-GI)과 대우조선해양의 천연가스 재액화 장치(PRS)가 설치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총 31 척의 ME-GI 엔진이 탑재된 LNG선을 수주하며 천연가스 추진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이번 계약과 동일 사양의 선박 2척을 발주했던 BW는 1년여 만에 추가 선박을 발주하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정 사장은"회사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전체 임직원의 노고가 수주로 이어졌다"며"기술력과 적기 인도로 선주 측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총 29척, 43억 달러 상당을 수주했다. /이정필 기자

'밴드', 글로벌 다운로드 5000만건 돌파

대만·인도서 급성장

네이버 자회사 캠프모바일의 그룹형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밴드(BAND)'가 5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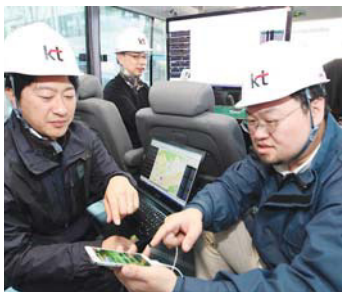
30일 네이버에 따르면 밴드는 전 세계 178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대만과 인도 등에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출시된지 3년 1개월만인 지난 22일 누적 다운로드 5000만 건을 돌파했다.

밴드는 지난 3월 글로벌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인 기반 폐쇄형 밴드 외에 누구나 관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밴드 기능을 추가했다. 이후 공개 커뮤니티 밴드가 50만개 이상 생성되며 밴드의 글로벌 진출 본격화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대비 총 체류ㄴ시간이 8400만분 이상 증가했다. 특히 대만과 인도에서는 최근 3개월 신규가입자 비중이 지난 8월 기준, 작년 동월 대비 각각 370%, 1422% 이상 다운로드 수치가 증가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

재난망 시범사업자 선정 '진검승부'

제안서 접수 마감
1사업 SKT vs KT
2사업 SKT vs LGU+
이달 중순 최종계약

SK텔레콤 'T오픈랩'에서 임직원과 협력 업체 직원들이 '재난망 테스트베드' 구축 시연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KT 직원들이 재난망 관련 기술인 LTE 기반 PTT(Push To Talk)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KT 제공

LG유플러스 직원들이 LTE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점검 중이다. /LG유플러스 제공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시범사업자 선정을 두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SK텔레콤이 선전하면 1·2사업을 모두 수주할 수 있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2사업을 수주하면 SK텔레콤이 고배를 마실 수도 있다.

SK텔레콤은 1사업(평창)에서 KT와, 2사업(강릉·정선)에서 LG유플러스와 경쟁한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재난망 시범사업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사업에 SK텔레콤 컨소시엄(SK텔레콤, 엔텔스, 텔코웨어, 사이버텔브릿지)과 KT 컨소시엄(KT, 위니텍, 아이티센, 한국전자기지국)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2사업에서는 SK텔레콤 컨소시엄(SK텔레콤, 사이버텔브릿지, 설악이앤씨)과 LG유플러스 컨소시엄(LG유플러스, 다산네트웍스, 디오텍)이 경쟁한다. 정보전략계획(ISP)을 담당했던 LG CNS와 리노스는 KT 컨소시엄, LG유플러스 컨소시엄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다.

1사업에는 관제센터를 비롯해 LTE 교환기로 불리는 EPC,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이 설치된다. 사업 예산은 약 338억원이다. 무선부분(RU) 기준으로 기지국 68개, 단말기는 648대(스마트폰형 310대, 무전기형 338대)가 공급된다. 전체 사업 예산 80%가 투자되고 EPC 등 핵심 장비가 설치되기 때문에 2지역에 비해 중요성이 매우 높다.

2사업에는 82억1600만원이 투자된다. 기지국은 137개, 단말기는 총 1848대로 스마트폰형이 886대, 무전기형이 962대다. 기지국과 단말기 설치가 주 사업으로 1지역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정선과 강릉 두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단말기와 기지국 수는 1지역보다 많다.

재난망 시범사업에서는 중소기업 참여 비율이 50%를 넘어야 해당 분야 만점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기술력을 갖춘 중견·중소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꾸렸다.

SK텔레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엔텔스는 LTE와 3G 등 코어 네트워크 장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텔코웨어는 종합 통신 솔루션 전문업체다. 사이버텔브릿지는 뛰어난 영상무전 기술을 갖춘 푸시투토크(PTT) 솔루션 업체로 SK텔레콤과 공군 시분할 롱텀에벌루션(LTE-TDD)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T 진영 위니텍은 대구 소재 업체로 소방관제 솔루션을 전문으로 개발한다. 아이티센은 IT인프라 구축과 서비스를 전문으로 한다. 매출 2000억원이 넘는 중견기업이다. 한국전파기지국은 통신망 관리 전문업체다.

LG유플러스는 다산네트웍스, 디오텍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다산네트웍스는 중견 통신장비 제조업체, 디오텍은 단말기 검증 전문업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시범사업에는 최대한 많은 단말기와 통신장비(기지국)를 제안할 것"이라며 "이 기간에 성능과 기능, 고객 선호도를 검증해서 본사업에 쓸 제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10월 7일 1사업, 8일 2사업 제안설명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계약과 사업 착수 시점은 10월 중순이다. 재난망 시범사업 기간은 210일로 내년 5월 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기가 오피스' 가입기업 700개사 돌파

KT 기업용 ICT 솔루션

KT는 ICT 인프라를 통합 제공하는 '기가 오피스(olleh biz GiGA office)' 서비스가 출시 10개월 만에 700개사를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기가 오피스는 사무실과 인접한 KT 지사를 기가 랜으로 연결해 KT지사에서 장비 호스팅, 인터넷 접속, 보안, 통합관제 솔루션 등 기업 ICT 운영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용 토탈 ICT 솔루션이다.

KT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7일 출시한 이후, 7개월만에 300개사가 가입했으며 그 후 3개월만에 700개사로 가입 고객이 2배 이상 급증했다"며 "기가 오피스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통합해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부산, 천안 인근 기업에만 제공되던 기가 오피스 서비스를 KT는 9월 초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5대 광역시에 신규센터를 열고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상품의 라인업도 확대된다. KT는 기가 오피스 센터로 이전한 고객 서버를 운용, 유지 보수하는 '운용대행 서비스'와 노후화된 고객 서버를 신규 서버로 교체해 관리, 운용하는 '가상화 기반 서비'를 11월 중 제공할 계획이다. /정문경 기자

황창규, 자사 주식 5000주 매입

KT '책임경영 의지' 표명

KT는 황창규(사진) 회장이 자사 주식 50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KT 관계자는 "황 회장의 자사 주식 매입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실적 개선과 수익성 향상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책임경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T는 2015년 상반기 무선사업에서 순증 1위를 기록했다. 기가 인터넷 가입자가 9월들어 60만을 넘어서는 등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KT는 2015년도 배당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주당 500원 수준의 배당을 검토 중이다. /정문경 기자

SKT "대한민국의 별을 맛보세요"

멤버십 가입자 대상 초청 행사

SK텔레콤은 지난해에 이어 고객 초청 행사 '테이블 2015 – 대한민국의 별을 맛보다'(이하 테이블 2015)를 마련하고 10월 5일부터 고객 응모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테이블 2015는 SK텔레콤이 T멤버십 가입자에게 특별한 요리를 선물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행사다. 지난해에는 해외 스타 셰프 5인을 초청해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의 식사를 고객에게 제공한 바 있다.

올해 SK텔레콤은 빅데이터 분석 기법 활용을 통해 선정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랑 받는 레스토랑 100곳을 소개한다. 그 중 전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레스토랑 50곳에 고객을 초청할 예정이다. 메뉴도 한식, 중식, 이탈리안, 프렌치 등으로 다양화 했다.

행사는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주간 진행된다. 응모기간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고객 1만명과 동반 고객 1만명 등 총 2만명에게 혜택이 제공된다.

테이블 2015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10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사 공식 홈페이지(http://www.table2015.com)에서 본인과 동반 1인 또는 특별한 식탁을 선물하고 싶은 2인을 지정해 응모하면 된다.

당첨된 고객은 1인당 1만원(동반고객 예약금 포함 총 2만원)의 예약보증금을 입금 해야 한다. /정문경 기자

LGU+, 간편결제 '페이나우' 도입

통신사 무관 이용가능

LG유플러스는 자사 인기 서비스인 LTE비디오포털, 보이는 쇼핑, 아이모리 등에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나우'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신사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들에서 페이나우 이용자는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로 콘텐츠와 상품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예컨대 LTE 비디오포털에서 VOD(주문형비디오) 구매 시 '페이나우'로 결제 가능하다.

또 LG유플러스는 연내 자사 인터넷TV(IPTV)인 유플러스 tv G에도 페이나우를 탑재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인기 서비스도 페이나우로 3초 결제한다.

한편 페이나우는 10월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보이는 쇼핑에서 페이나우로 3만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할인을 비롯, 농협 에이-샵, 노랑풍선, 문정아 중국어 연구소, 파고다 어학원 등 가맹점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문경 기자

미국 發 '약값 규제'… 제약·바이오株 '직격탄'

힐러리 클린턴, 약값 규제 공약 발표… 나스닥 바이오주↓
증권가, "당분간 조정 불가피" vs "국내 제약주에 긍정적"

미국 내 약값 논쟁이 거세지면서 국내 증시의 제약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증권가에선 이미 버블논란에 휩싸인 제약주에 미국 발(發) 논쟁이 더해져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과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경보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18.50%(3200원) 급락한 1만4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의약품 대장주인 한미약품도 전일보다 3.26%(1만2500원) 하락해 37만1500원을 기록했다. 이밖에 유유제약(-11.55%), 대원제약(-8.03%), 슈넬생명과학(-7.47%), JW중외제약(-4.27%), 명문제약(-4.07%), 보령제약(-3.37%), 유한양행(-2.01%) 등 제약·바이오주가 일제히 내렸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에 올라 있는 셀트리온도 전일 대비 2.86%(2000원) 내린 6만79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아스템이 8.86% 급락했고 인트론바이오(-6.84%), 펩트론(-6.53%), 메디포스트(-5.58%), 코오롱생명과학(-4.71%), 경남제약(-4.37%), 메디톡스(-4.20%) 등도 큰 폭 하락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 의약품 업종은 2.74%, 코스닥시장 제약 업종은 2.93% 떨어졌다.

앞서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약가 인하 정책을 공언하면서 나스닥지수의 바이오주가 5% 급락, 이 여파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미국 내 약값 논쟁에 나스닥 바이오주가 일제히 하락한 여파가 국내 제약주까지 끌어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약값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고가약 논쟁에 불을 붙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953년 개발된 말라리아 치료제 '다라프림' 가격은 지난 8월 소유권이 새 주인에게 넘어간지 하루 만에 13.50달러(한화 약 1만6000원)에서 750 달러(한화 약 88만4000원)로 50배 이상 뛰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지난해 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의 바이오 약품 등의 처방액이 30.9%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약 처방 지출액도 전년대비 13.1% 급증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10년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월 250 달러로 제한하고 소비자에 대한 약광고비의 세금감면 제도를 철폐하는 등의 약가 규제 공약을 내놨다.

이후 21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의 생명공학주와 의약·바이오주가 급락했다.

미국 내 약값 논쟁이 국내 제약·바이오주에 악재일지 호재일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정보라 동부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 약가 규제가 시행된다면 제약시장은 위축되고 신약 개발회사들의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며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초여건에는 변화가 없지만 거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당분간 주가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은택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클린턴 후보의 약가 규제 이슈는 지난 2013년 소발디(간염치료제) 약가 조사와 비슷하다"며 "규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분위기는 2013년보다 더 강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의 반대로 약가 인하 정책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적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통해 바이오시밀러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와 정부지원 확대 정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에는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하이투자증권, 연금저축·IRP 가입 이벤트

이전 고객 등에 모바일 상품권

하이투자증권은 1일부터 연말까지 연금저축과 IRP 신규 가입 및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 '절세007'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 신규 가입고객이 월 15만원 이상 3년 자동이체 약정을 하거나 거치식 100만원 이상 가입 시 1만원 모바일상품권을 선착순 1000명, 400만원 이상의 타사 연금을 이전 시에는 3만원 모바일상품권을 선착순 150명에게 지급한다.

기존 고객의 경우 구 연금펀드에서 신 연금저축으로 전환하거나 추가 불입 시에(400만원 이상) 추첨을 통해 각 1만원, 2만원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기조가 이어지고 주식시장의 변동이 커진 가운데 연 700만원을 불입해 절세와 노후대비는 물론 재테크 투자자산으로도 유용한 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고객의 체계적 은퇴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고객맞춤 목표 연금액과 적립액을 설계하는 '연금 종합설계 화면'을 오픈하고 주요 연금 이슈와 추천 연금 포트폴리오 등의 정보를 수록한 직원용 '연금BOOK'을 발간하는 등 고객 연금컨설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해지 시 적용되는 세제 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연 3%의 이자로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자녀대상 연금저축 가입 시 세무사 증여상담 및 신고대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및 고객지원센터(1588-7171)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배 기자

휴젤 등 4개사 상장심사 청구

올해 122개사 예심 청구

지난주(21일~25일) 휴젤 등 4개사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3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강스템바이오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업체로 지난 22일 상장예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2억800만원, 44억5400만원이다.

23일 상장예심을 청구한 바이오리더스는 바이오 의약품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손실 각각 11억6700만원, 35억3400만원을 기록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업체인 예스티는 지난 24일 상장예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04억2300만원, 26억8700만원을 기록했다.

또 상장예심을 신청한 의약 물질 제조업체 휴젤은 매출액 232억6900만원, 영업이익 127억600만을 기록했다.

이날 현재 상장예비심사가 진행중인 회사는 31개사, 올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낸 회사는 모두 122개사다.

/차기태 기자 folium@

증권 마감시황

코스피, 연휴 징크스 딛고 1%대 상승

코스피가 추석 이후 첫 거래일 '명절 후 급락' 징크스를 깨고 1%대 상승했다. 연휴 기간 중국 경제지표 부진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주요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된 결과로 풀이된다.

30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96포인트(1.03%) 오른 1962.81로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365억원, 1502억원어치 내던졌지만 외국인이 1479억원 순매수해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업종별로는 보험(2.52%), 화학(2.23%) 등이 크게 올랐고 은행, 운수장비, 금융업, 전기전자 등도 1%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미국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촉발한 고가 약 논쟁 여파에 따라 의약품이 2.74% 떨어졌다. 증권과 철강금속, 의료정밀도 1%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폭스바겐 사태에 수혜주로 떠오른 현대차(1.23%)와 현대모비스(4.04%), 기아차(4.08%)가 동반 상승했다.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화장품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되면서 아모레퍼시픽(5.05%), LG생활건강(3.52%) 등도 큰 폭 올랐다. 반면 한국전력과 삼성물산은 약보합권을 형성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4.22포인트(0.62%) 내린 678.48로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2억원, 425억원씩 순매도한 반면 개인 홀로 779억원어치 사들였다.

업종별로는 하락업종이 우세했다. 출판매체복제가 4.50%로 크게 올랐고 운송장비부품(1.97%), 인터넷(1.07%) 등도 상승했다. 섬유의류(-3.68%), 제약(-2.93%), 건설(-2.10%) 등의 낙폭이 컸고 제조와 의료정밀기기도 1%대 내렸다.

시총 상위 종목은 로엔(5.40%), 동서(3.09%), 다음카카오(2.36%) 등이 오른 반면 메디톡스(-4.20%), 바이로메드(-3.00%), 셀트리온(-2.86%), 파라다이스(-1.54%) 등은 하락했다.

/김보배 기자

코스피가 30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추석 연휴 징크스'를 딛고 반등에 성공, 1,960선에 올라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우대금리 일방적으로 철회 못한다

금감원, 금융약관 정비방안 발표

'모든' 등 포괄적 표현 금지
수수료 부과방식 약관 명시
추가담보 제공 요구 제한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포괄적인 약관조항을 악용해 고객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그동안 불합리하게 이뤄져온 관행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실제로 A씨의 계좌가 본인 모르게 범죄에 이용돼 피해를 입은 B씨가 부실관리 책임을 물어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은행이 '발생 경위를 불문하고 은행이 부담한 일체의 손해 등에 대해 고객이 부담한다'고 규정된 약관을 근거로 A씨에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

30일 김영기 부원장보가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처럼 금융회사들이 약관에 명시된 '모든·여하한·어떠한' 등 포괄적인 표현이나 불명확한 개념을 이용해 고객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고객에 떠넘기거나 의무를 지우는 등의 '부당한 책임 전가 행위'가 금지된다.

앞으로는 수수료 부과방식, 지연이자 등을 결정하는 조항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되는 등의 변경 사항을 고객이 예측하기 힘들고,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변경에 따른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우대금리 요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고객에게 별도 통보 없이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고객에 사전 연락을 취하지 않아 분쟁발생 소지가 높았던 조항도 개별 통지하도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도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담보 요청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회사는 약관 변경 시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고객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고객의 의사표시 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한 표현을 삭제하고 온라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대출이자 납부가 1개월만 늦어져도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되거나 채무 기한이 끝나기 3영업일 전 조합이 사전 통지해 대응 시간이 부족한 부분도 개선토록 했다. 신협과 산림조합 등이 고객에 불리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 보험사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주계약과 연관성이 낮은 특약에 의무 가입시키는 행위도 금지한다.

변액보험과 자동차대출, 선불카드 표준약관도 개선된다.

현재 변액보험은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등 일반보험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다. 이에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 구조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대출 상품에 대한 여전사와 고객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비하고 선불카드 사용 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른 잔액확인과 환불절차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안내토록 하는 등 약관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별로 TF를 구성, 올해 약관 제·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거래 기준이 미비해 민원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제정에 들어간다"며 "변액보험 등 그 동안 거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많았던 분야도 표준약관이 제정됨으로써 관련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한국 올해 성장률 '꼴찌' 될 듯

전문가 "저성장 고착화 우려해야"
신흥국 취약성 평가선 안전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주요 신흥국 가운데 가장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옥스퍼드대 산하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13개 신흥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브라질과 러시아, 그리고 위기국으로 평가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발표한 신흥국 취약성 평가에서 한국은 필리핀 다음으로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성장률 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 속에서 이제는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신흥국 취약성 평가에서 한국은 매우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성장률에 대한 평가는 부진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2% 초중반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남아공과 이미 경기침체에 진입한 브라질과 러시아 다음으로 저조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인도가 7% 넘는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상됐고, 그다음으로는 중국이 6%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다음으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폴란드, 터키 등의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예상했다.

태국과 멕시코는 한국과 비슷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성장률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 한국은 브라질과 러시아, 남아공, 멕시코, 태국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중국의 10년간 성장률 평균은 10%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과 비슷해지면서 성장률도 선진국처럼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LG경제연구원의 이근태 수석 연구위원은 "신흥국에서 한국 경제 규모 자체가 사실상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면서 성장 속도도 둔화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근태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2% 중반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의 둔화로 평균적인 성장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차기태 기자 folium@

KEB하나은행, 청년일자리창출 기금 전달 오상영 KE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대표가 30일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안희정 도지사에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한국 국가경쟁력 작년과 같은 26위

WEF, 140개국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에서 작년과 같은 26위를 기록했다.

26일 WEF가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 순위가 조사대상 140개국 가운데 작년과 같은 26위라고 30일 발표했다.

WEF가 매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로 올라선 이후 2012년 24위에서 19위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져 왔다.

2013년부터는 25~26위에 머물러 있다.

분야별로는 3대 항목 가운데 거시경제·인프라 등이 포함된 '기본요인' 순위가 지난해 20위에서 18위로 올랐으나 평가비중이 50%로 높은 '효율성 증진' 순위는 25위로 변동이 없었다.

'기업혁신' 분야도 22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를 다시 12개 하위 부문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환경 순위는 7위에서 5위로 올랐다.

정부 규제의 효율성·정책결정의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요인은 82위에서 69위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는 80위에서 87위로 미끄러졌다.

이밖에 기술수용 적극성(25→27위), 시장 규모(11→13위), 기업 혁신(17→19위) 분야에서도 뒷걸음질 쳤다.

노동시장 효율성은 작년보다 세 계단 올랐지만 83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차기태 기자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힐링 마케팅 대세… '공원 품은 아파트' 봇물

건강·여가생활 관심 높아져 공원 인접 아파트 인기 치솟아 3.3㎡당 300만원 프리미엄도

올 하반기에는 '공원 품은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최근 건설사들은 대형(수변) 공원이 있는 곳에 아파트를 짓거나 단지 내 공원을 조성한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수요층이 '힐링·건강'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원'이 중요한 분양 마케팅 요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공원 인접 아파트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일산신도시 대표 공원인 일산호수공원 인접 아파트는 일산신도시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다.

특히 호수공원을 앞 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우성19단지'와 '신안레이크뷰17단지' 가격은 3.3㎡당 각각 1376만원과 1216만원으로 일산신도시 평균 아파트값 1038만원을 웃돈다. 3.3㎡당 200만~300만원 가량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셈이다.

새 아파트 역시 인기다.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조망 아파트로 유명했던 '힐스테이트 광교'와 '광교중흥 S클래스' 2개 단지는 모두 1순위에서 주인을 찾았다. 특히 힐스테이트 광교는 계약시작 4일 만에 완판됐을 정도다.

공원 품은 아파트는 10월 들어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선다.

전주 에코시티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화성 남양뉴타운, 경산 펜타힐즈 등 계획도시 내 대규모 공원을 접한 단지 등은 물론 수변공원 옆 단지, 단지 내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 단지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10월 전주 에코시티 4블록과 5블록에서 '에코시티 데시앙'을 분양한다. 단지는 축구장(약 7140㎡) 28개 규모의 에코시티 최대 공원인 센트럴파크(약 20만㎡)와 맞닿아 있다. 단지를 나오면 바로 공원 이용이 가능하다. 2개 블록을 합해 모두 1382가구의 대단지다.

삼성물산이 11월 분양 예정인 '래미안 북한산 베라힐즈'는 단지 인근으로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과 독바위 공원이 있다. 단지 규모는 1305가구며 이중 33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효성이 파주 조리읍 봉일천리에 분양 예정인 '파주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인근 캠프하우즈는 주거단지와 함께 약 107만 6242㎡의 문화공원과 4000세대의 대규모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이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하는 1956가구 규모의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의 경우도 단지 인근에 공원이 있다.

효성·진흥기업은 남양주시 별내지구 SPAN B2블록에 307가구 규모의 '별내 효성해링턴 코트'를 분양한다. 역사문화공원(약 6만5000여㎡)과 맞닿아 있다.

동광건설은 화성 남양뉴타운 B-4블록에 673가구 규모의 '화성 남양뉴타운 동광뷰엘'을 선보인다. 단지 앞으로 16만㎡에 이르는 대규모 수변공원이 있다. 단지 내에는 축구장보다 넓은 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10월 분양 예정인 공원 품은 아파트 단지

구분	위치	단지명	총가구수	전용(㎡)
대규모 공원 옆 단지 조성	서울 은평구	래미안 북한산 베라힐즈*	1305	59, 84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	1382	59~104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1956	74, 84
	경기 파주	파주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490	59, 71
	경기 남양주	별내 효성해링턴 코트	307	84
수변공원 옆 단지 조성	경기 화성	화성 남양뉴타운 동광뷰엘	673	80~84
	경북 경산	펜타힐즈 더샵2차	791	77~108
	김포 한강신도시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924	59, 84
	충북혁신도시	건영아모리움 양우내안에	842	84
	인천 가정지구	가정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	980	73~84
	충북 청주	청주자이	1500	59~108
단지 내 대규모 공원 조성	다산신도시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1085	62~84
	경기 용인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6800	44~103
	경기 화성	신동탄파크자이1차	982	76~100
자연환경을 옆에서 누리는 단지	경기 용인	기흥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1679	73~123
	경기 오산	오산세교자이	1110	75~83
	경남 거제	힐스테이트 거제	1041	84~142

*는 11월 분양

주택 전월세 전환율 6%→5%로 하향조정

10월 서민주거안정대책 확정 연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석 이후에도 전세난이 계속 이어지며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소 앞에 전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이 6%에서 5%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에는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지난달 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확정하고 법 개정에 들어간다.

국회는 지난해 말 전월세 대책을 중심으로 한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 조정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은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면서 합의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10월 열릴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인이 기존 계약 기간 내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위는 현재 '기준금리의 4배(기준금리×4) 또는 10%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방식으로 바꾸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시중 은행 금리와 주택시장의 전월세 전환율 등을 감안할 때 '5%'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1.5%인 것을 감안하면 기존 방식으로는 6%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5% 이내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준금리에 더하는 '알파(α)'값은 3~4가 될 전망이다.

특위는 또 각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조정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집주인이 무리한 월세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면 적정 임대료 수준에서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박상길 기자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 24세로 확대

늦깎이 중·고생 대상 학생증 제시 후 혜택

버스·지하철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대상이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정책으로 1만 2000명이 추가로 청소년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1일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생까지로 확대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시는 7월 개정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취지를 고려해 대중교통 운송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19~24세 중고생은 기존 일반요금 1250원(지하철), 1200원(버스)에서 각각 530원과 480원이 할인된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24세 고교생이 지하철을 타고 한 달을 통학하는데 일반 요금을 내면 5만원이 들지만, 할인 적용을 받으면 2만1200원을 아낄 수 있다.

청소년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 교체하거나 통합권종 교통카드일 경우에는 '청소년용'으로 권종을 변경해야 한다.

24세 이하 중고생이 청소년 교통카드로 아직 변경하지 못한 경우 버스 승차 시 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GS건설, 8일 '신동탄파크자이' 1차 분양

GS건설(대표 임병용)은 10월 8일 경기도 화성시 능동 625번지 일원 신동탄파크자이 1차 분양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신동탄파크자이 1차는 지하 3층~지상 21층, 11개동, 전용면적 76~100㎡ 98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76㎡ 392가구 ▲84㎡ 406가구 ▲100㎡ 184가구로 구성되며 선호도 높은 85㎡ 이하 중소형 평형이 81%를 차지한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76㎡형의 경우 2면 개방형 설계가 적용됐으며 곳곳에 수납공간이 마련됐다. 84㎡형은 전면 4bay 평면에 주방 옆으로 대형 알파룸과 팬트리가 조성됐다. 100㎡형은 전면 4.5bay 평면에 마스터존 수납강화를 적용했다. 알파룸을 드레스룸 혹은 서재로 선택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전세 7.5%↑

지난해 연간상승률 1.5배

서울 아파트 전세가 올해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인 4.86%의 약 1.5배를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달 30일 KB국민은행(행장 윤종규)에 따르면 자치구별 전세 상승률은 성북구(10.65%), 강서구(10.56%)가 10%대를 넘어섰다. 강동구(9.19%), 영등포구(9.00%), 동작구(8.62%), 마포구(8.38%), 송파구(8.00%)에서도 전세가 많이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는 6.51% 올랐고 경기도는 5.99%, 5개 광역시는 3.57%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8월 72.4%를 기록한 뒤 한달새 0.5%포인트 오르며 72.9%로 올라섰다. /박상길 기자

"대기업 축산업 진출, 먹거리 질적 위기 불러"

한우산업발전 위한 대토론회

"기업논리와 경영논리 접근은 위험" 한목소리

사육, 사료, 유통 등 전방위로 가속화되고 있는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먹거리의 질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축산업은 식량주권산업으로 대기업의 기업논리와 경영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기업의 축산진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미국의 축산업은 대규모로 생산된 사료곡물, 즉 옥수수와 대두에 의존해 성장한 대기업 위주의 농업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생산 모델은 수확량 증대에는 성공했으나 먹거리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없는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들이 나타났으며 미국 식습관의 일방적인 전파 등으로 먹거리 자체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결국 미국과 같은 대기업 자본 중심의 축산진출은 먹거리의 질적 위기로 이어졌다. 좁은 의미에서는 식품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넓은 의미에서는 농업의 생태성 문제를 포괄적으로 갖고 왔다"며 "국내에서도 대기업에 의한 공장식 축산은 저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 '대기업 축산 진출의 문제점과 대책'을 발표한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로 사육, 사료, 유통분야의 시장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사육분야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계열화 사업을 중심으로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우산업 발전 법안 마련과 대기업 축산진출의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뉴시스

또 "이 같은 대기업의 대량사육은 질병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성장촉진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며 "대기업 위주의 시장 주도로 사료곡물가격 상승분이 사료 판매가격에 전가되는 등 양축농가의 경영비 증가와 기업 종속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교수는 "대기업 축산업 진출 억제방안이 도입돼야한다"며 "특히 축산법을 개정해 대기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여기에 세부적인 규제를 통해 사료업체나 가공업체가 계열화를 통해 농가를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농업진출에 따른 농업구조 변화'에 대해 발표한 황인식 금골농장 대표는 "정부의 경제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농업계에 대기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농업인들의 생존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기업의 농업 생산 분야 진출은 경제민주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감소와 타 작목에 대한 연쇄 피해와 식량안보 위협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거시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부문에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농산물 직접 생산을 제한·축소하거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이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에 정부 지원자금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우자조금과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과 이근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CJ, 인니 농가 브랜드 발굴 지원 나서

일촌일품사업 참여 MOU

CJ그룹(회장 이재현)이 인도네시아 농가의 브랜드를 발굴하는 동반성장 사업에 나선다.

CJ그룹은 지난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CGV blitz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일촌일품(OVOP) 사업에 참여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는 낙후된 지역사회 개발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품목을 선정해 소득을 올리는 OVOP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선정 품목의 대부분이 코코아, 대나무식기 등 소규모 생산의 자급자족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J그룹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손잡고 인도네시아 사업장이 갖고 있는 우수한 기술과 마케팅 노하우를 투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력하기로 했다.

/CJ그룹 제공

CJ는 우선 족자카르타주 꿀론 쁘로고군 지역의 코코넛설탕 농가를 후원하고 코코넛설탕을 활용한 '코코넛 캐슈넛 파이' 등 제빵류와 외식 메뉴를 인도네시아 뚜레쥬르, 비비고 등 17개 매장에서 판매한다.

또한 코코넛설탕의 현지 유통을 위해 해당 매장에서 소포장 제품을 판매해 소규모 지역 농가의 판로를 확대해 줄 계획이다. 더불어 코코넛설탕의 장점을 알리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기획, CGV blitz 극장 플랫폼과 SNS를 통해 홍보하는 등 판로 개척 뿐 아니라 제품의 마케팅 홍보 등 소규모 지역 농가에서 실행키 어려운 사업에 당사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CJ가 2016년 10월까지 1년간 꿀론 쁘로고군을 후원해 얻게 될 농가의 경제적 성과는 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손용 CJ인도네시아 총괄대표는 "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 지역 유망 브랜드를 발굴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농촌지역과 기업은 물론 지구촌 사회 전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윈-윈-윈 전략"이라며 업무협약 취지를 설명했다. /정은미 기자

"명절 남은 음식, '올어바웃푸드' 레시피대로 하세요" 30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이 명절 남은 음식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레시피 기반 푸드 컨텐츠 제공 사이트인 올어바웃푸드(www.aafood.co.kr)를 통해 나물김밥, 잡채 고로케, 비빔밥 케이크 등 10여 가지 이색 레시피를 제공한다. /홈플러스 제공

롯데면세점, 지역 관광활성화 공조 약속

종로구·중구와 MOU 체결

롯데면세점(대표 이홍균)은 30일 종로구 지역관광 활성화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종로구·롯데면세점 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인사동과 청계천 등으로의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및 프로모션 역량을 제공하고, 종로구청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종로구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1일 최창식 중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와도 지역관광 활성화와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성현 기자 minus@

백화점 먹거리, 소비자 입맛 '취향저격'

맛집 인기로 효자품목 등극

최근 맛 집 방문을 위해 백화점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먹방'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커지면서 먹거리로 소비자를 유치하려는 백화점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매그놀리아베이커리, 조앤더주스, 사라베스 등 다양한 맛 집과 함께 오픈한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식품관 매장의 인기와 함께 개장 2주 동안 목표의 120%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시작으로 롯데백화점 노원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내 입점한 60년 전통의 '삼진어묵'은 2013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어묵고로케를 중심으로 부산에 이어 수도권 소비자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를 통해 유명세를 탄 미국 베이커리 브랜드 '매그놀리아'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내 첫 입점과 동시에 매일 5000개씩 판매를 하며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태원 경리단길의 줄 서서 먹는 맛 집으로 잘 알려진 수제 츄러스 '스트릿츄러스'는 지난 4월 롯데백화점 광복점을 시작으로 롯데백화점 울산점, 롯데백화점 창원점, 갤러리아 진주점, 여주프리미엄아울렛점, 용산아이파크몰점 등으로 매장을 확대 오픈하고 있다. /정은미 기자

블랙프라이데이, 내수경기 구원투수 될까

백화점·마트·편의점·외식 등 1~14일까지 2만6000업체 참여
이월 판매·생색내기 할인 눈살 제조업체 불참 '반쪽행사' 우려

30일 트위터 상에서 네티즌들의 비난을 산 블랙프라이데이 '90원' 할인.

정부와 유통업계가 합심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70% 할인을 시행하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내수 진작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에 소비자가 최대 규모 쇼핑을 해 상점 장부가 적자(赤字)에서 흑자(黑字)로 바뀐다는 데서 유래했다. 1년 소비의 20%가 이때 이뤄진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는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올해 처음 기획했다. 메르스 충격으로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까지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했던 할인행사를 확대한 것이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에는 백화점 71곳, 대형 마트 398곳, 편의점 2만5400곳 등 대형 유통업체 2만6000여 점포를 비롯해 전국 200개 전통시장과 온라인 유통업체 16곳,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참여한다. 특히 행사가 백화점 가을 정기 세일(9월 25일~10월 18일)과 겹치며 소비를 더욱 촉진할 전망이다.

롯데백화점은 내달 18일까지 58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이는 기존 정기 세일 때보다 40여 개 브랜드가 더 참여하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이 기간 백화점카드로 결제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구매금액을 전액(100%) 돌려준다. AK플라자는 1일부터 4일까지 30만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5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주요 유통업체 이용 혜택도 준다.

대형 마트들은 신선 식품 등을 최고 50%까지 할인하며 한글날 연휴(10월 9~11일) 등에 맞춰 더욱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온라인 몰에서도 내달 4일까지 1만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한다. 홈플러스는 전국 140개 점포와 온라인몰에서 인기 생필품을 최대 반값에, 냉장고·김치냉장고 등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편의점 업계는 1+1 상품을 확대하고 일부 상품 할인을 시행한다. CU는 탄산수를 포함한 인기 상품을 살 때 CJ멤버십 포인트를 최대 12% 적립하고 GS25는 10월 말까지 인기상품 700여 종을 대상으로 1+1 행사를 한다. 세븐일레븐은 음료와 과자를 포함한 30여 개 품목을 15~30% 할인한다.

전통시장은 시장별로 최대 30% 할인을 실시한다. 온라인쇼핑몰도 특가할인과 블랙프라이데이 전용관 서비스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11번가와 옥션 등은 특정 품목을 매일 50% 할인하거나 할인 쿠폰 제공 행사를 한다.

한편 업계 내부에서는 제조업체의 불참과 이월재고 상품 판매로 소비 촉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조업체의 불참은 한국 시장의 규모가 작고 재고를 할인해 팔 정도로 매력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30일 SNS 상에서는 한 마트에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올라온 과자 가격표 사진이 네티즌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가격표에는 1290원에서 1200원으로 조정한 값이 적혀 있다. 할인 행사의 대명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걸어 놓고 90원을 깎아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트위터 아이디 ikgxxxx는 "블랙프라이데이가 한국에 오면?…90원 할인 고오맙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zxxxx는 "10월에 선풍기를 사라고? 재고처리로 점철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지적했고 아이디 cailxxx는 "K-블랙프라이데이의 블랙은 블랙기업의 블랙과 같은 용법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그레이스 켈리' 침구로 포근하게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프리미엄 베딩 전문 브랜드 소프라움의 '그레이스 켈리 라인' 침구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카페베네, 베트남 호치민에 첫 가맹점 오픈

카페베네(대표 최승우)는 베트남 호치민에 첫 가맹점 'SC 비보시티점'의 문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카페베네 베트남 SC 비보시티 매장은 총90평(297.5m2) 규모로, 카페베네의 베트남 3호 매장이다.

매장이 입점한 SC 비보시티몰은 고급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호치민 7군 지역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복합쇼핑몰로 해외 유명 브랜드와 CGV 극장 등이 입점해 있다.

지난해 베트남에 처음 진출한 카페베네는기존 2개 베트남 직영 매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이번 가맹점을 오픈했으며 앞으로 가맹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매일유업, 클래식 선율로 가을 밤 적신다

매일유업(대표 김선희)의 '제23회 매일 클래식'이 2일 오후 7시 30분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또 3일에는 경산 제2수송교육단에서, 4일에는 부산 범어사에서 특별공연을 펼쳐 '찾아가고 초대하는' 매일 클래식의 좋은 취지를 펼칠 계획이다.

이번 공연은 '가을의 인사, GREETINGS IN THE FALL'이라는 테마 아래, 거쉬인의 노래와 라벨 소나타, 생상의 아리아와 슈만의 동화이야기, 한국가곡과 신나는 전통 Klezmer 음악까지 가을의 정서를 표현하는 기악과 성악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환절기 면역력 키우는 건강메뉴 개발 한창

식품·외식업계
식이섬유 음료 잇따라 출시 15가지 곡물 함유 도우 선봬

일교차가 큰 환절기로 접어들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급격한 기온 차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 몸살 등의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외식업계는 환절기를 맞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메뉴를 출시하고 있다.

동원F&B는 최근 몸에 좋은 유산균 배양액에 비타민C, 배변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를 포함한 유산균 음료 '덴마크 테이크 얼라이브'를 출시했다. 장은 면역세포의 70%가 분포돼 있어 평상시 유산균 음료를 섭취해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면역력 강화에 좋다. 덴마크 테이크 얼라이브는 이스라엘산 스위티자몽과 망고 과즙을 넣어 상큼하게 즐길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사포닌·식이섬유가 풍부한 우엉을 원료로 만든 '잘빠진 하루 초가을 우엉차'를 선보였다. 우엉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과 장 운동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피자배달 전문점 도미노피자는 15가지 국내산 곡물을 함유한 '곡물 도우'를 모든 피자로 확대 출시했다. 도미노피자의 곡물 도우는 보리, 현미, 찰현미, 대두, 흑미 등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한 15가지 국내산 곡물을 사용했다. 현미는 쌀 속의 진주로 통하는 옥타코사놀과 베타글루칸 등 면역 증강 성분을 보유하고 있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최근 외식업계는 환절기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메뉴 개발에 한창"이라며 "이러한 제품들은 건강에 좋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건강 관리를 실천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힙합 뮤직파티·마술쇼 구경오세요"

에버랜드
금·토 저녁엔 '호러클럽' 토요일 낮엔 '매직쇼' 공연

삼성물산 리조트건설부문(대표 김봉영)이 운영하는 에버랜드는 힙합 뮤직파티와 마술쇼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공연을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에버랜드는 오는 3일부터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힙합 음악과 호러 콘텐츠가 결합된 뮤직파티 '호러클럽 2015'를 연다.

호러클럽 2015 공연 이미지컷. /에버랜드 제공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마술사 최현우와 최민수가 펼치는 '할로윈 매직쇼'도 올해 새롭게 선보인다. /박상길 기자

애경
천연세제 '내추럴 온리 3' 출시

애경(대표 고광현)이 100% 천연 유래성분 3가지로만 만든 친환경 세탁세제 '내추럴 온리 3'(사진)를 출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불필요한 화학성분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세정에 꼭 필요한 3가지 성분만으로 높은 세척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추럴 온리 3는 일반세탁기와 드럼세탁기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며 3kg에 1만3900원이다.

체계 탄탄한 사내교육… 2년간 퇴사자 0명

티몬 '직원 관리' 문화 눈길
신입은 100일간 '티움멘토링'
기존 직원과 1대 1 적응 지원
외국어·교양 등 E러닝 교육도

소셜커머스 기업인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이하 티몬)가 체계적인 사내교육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급성장에 따라 소홀했던 개개인의 성장과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며 최근 2년간 공채 입사자 중 단 한명의 퇴사자도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티몬은 기업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내부 직원교육에 열심이다.

티몬은 자사만의 인재상인 '몬스터 웨이'(Monster Way)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신입·경력사원 모두 티몬만의 기업문화에 무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티몬은 지난 2010년 500억원 규모였던 소셜커머스 시장이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100배 가량 급성장한 배경을 직원들의 노고와 열정으로 꼽고 있다. 인력이 곧 회사의 성장이라는 입장이다.

티몬은 공채 시즌을 맞아 신입·경력은 물론 기존 직원들을 위한 내부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30일 소개했다.

티몬은 업계가 5년차를 맞은 만큼 직원들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로 입사하는 직원들은 '뉴 티모니언 트랙'이라고 불리는 신규 입사자 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에는 회사를 돌며 사내 시스템과 조직을 익히는 과정이 포함된다. 신입사원들은 물류센터와 고객센터까지 곳곳을 돌며 현장의 고충과 고객의 입장에서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입사 후 100일 동안은 '티움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직원과 신규직원을 1대1로 지정해 단순한 직무교육이 아닌 인간적 관계를 통해 신규입사자의 조기적응을 돕게 된다.

기존 직원에게는 ITT(Insight Tmonian Track), STT(Smart Tmonian Track), E러닝 등의 주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티몬 직원들이 사내 교육프로그램 STT를 통해 사무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있다. /티몬 제공

ITT는 각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 직원들이 시대에 맞는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STT는 기초적인 업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강연으로 매달 사전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사무에 필수적인 '엑셀', '파워포인트' 교육은 물론 '협상과 설득의 기술', '기초 재무회계', '인포그래픽', '구글 애널리스틱' 등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E러닝을 통해서는 외국어, 직무, 리더십, 교양까지 1000여 개의 다양한 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도 있다.

또한 티몬은 스터디 제도를 통해 자기계발을 하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사내 도서관을 조성해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적을 자유롭게 대여해주고 있다.

티켓몬스터 이승민 인사기획실장은 "소셜커머스 업계가 5년 차에 접어들며 회사는 물론 직원 개개인의 성장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티몬은 체계적이면서도 자유로운 기업문화의 장점만을 잘 조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관광公, 경복궁서 유커 맞이 환영 이벤트

임직원·관광경찰 현장 배치
소개책자·전통부채 등 증정
정창수 사장 '1일 해설사' 활약

한국관광공사(정창수 사장)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환영메시지를 전하는 한국관광 홍보행사를 경복궁에서 전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관광공사 임직원과 관광경찰 등이 경복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경복궁 소개 책자와 전통부채 기념품 등을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정창수 사장은 '1일 문화관광해설사'가 돼 경복궁을 소개했다. 아울러 정 사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 명동 지역 상점들을 방문해 관광객 환대 실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임직원들이 경복궁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국경절 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약 21만명(전년대비 약 30% 증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진단부터 치료까지… 간 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대목동병원 간센터
13일 '간의 날' 기념 건강강좌
참여자 내시경 촬영권 등 추첨

이대목동병원 간센터(유권 센터장·사진)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제 16회 간의 날을 기념하는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간의 구조와 역할(문일환 교수) ▲간경화의 관리(김태헌 교수) ▲간암의 진단과 치료(유권 교수) 등 간 질환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가 진행된다.

간질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이번 강좌 참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위 내시경 촬영권과 복부 초음파 촬영권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대목동병원 간센터(02-2650-2508)로 문의하면 된다. /유선준 기자

6평짜리 이동식 목조주택

3시간이면 '주말별장' 뚝딱

캠핑 등 여가문화 확산
'이동식 목조주택' 인기
주말농장·계곡·임야 등
자투리 땅 어디나 가능

여가 문화 확산으로 자투리 땅을 활용한 캠핑하우스나 주말별장, 이동식 목조주택 등 소형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동식목조주택은 간소하면서도 실용성 있는 구조로 일반 주택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는 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주택보다 40~50%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주말농장이나 논·밭 근처 계곡, 임야 등 어디에서나 공간만 있으면 별다른 신고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임시 사무실로도 활용 가능한 만능 스마트하우스다. 내부에는 일반 가정집처럼 싱크대나 배수구, 전기, 샤워시설을 들여놓을 수 있다.

자재에는 지붕재 30년산 아스팔트 싱글(오웬스코닝), 창호재 16㎜페어 이중창 (영림창호), 내부마감재 도배·원목루바 혼합마감, 거실천장 마감 원목루바 마감 등이 들어간다.

원하는 사이즈로 제작 가능하며 설치에는 약 2~3시간 소요되지만 해체는 1시간이면 끝난다. 비용은 평당 240만원 선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

star bag

키이스트에 새 둥지

배우 **안소희**가 키이스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키이스트 측은 "안소희는 키이스트를 새로운 소속사로 결정하고 연기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소희는 현재 영화 '부산행'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앞두고 있다.

中 웹영화 '성형' 캐스팅

배우 **임주은**이 중국 웹영화 '성형'의 여주인공에 캐스팅됐다.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 이유란(임주은)과 중국의 천재 성형외과 의사 리우베이치가 공동으로 뷰티 클리닉을 운영하며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첫 정규 앨범 발표

가수 **에일리**가 첫 정규앨범 '비비드'를 지난달 30일 정오 발표했다. 타이틀곡 '너나 잘해'는 처음과 달라진 연인에게 떠나기 전 잘하라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표현을 가사에 담은 곡이다. 강하고 자존감 있는 여성의 모습을 선보인다.

8년 만에 새 앨범

인디 뮤지션 **전자양**이 8년 만에 새 앨범 '소음의 왕'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지난 4월 발표한 디지털 싱글 '쿵쿵'을 시작으로 5인조 밴드로 재편성된 전자양의 새로운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음반이다.

'스피드 업'으로 컴백

걸그룹 **멜로디데이**가 레트로 팝 댄스곡 '스피드 업'으로 오는 7일 컴백한다. 소속사 관계자는 "타이틀에는 레이서로 변신한 멜로디데이 멤버들의 사랑을 향한 솔직한 질주 본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배우 생활 25년차에 접어든 이범수(45)에게 연기는 여전히 새롭고 흥미로운 일이다. 수많은 작품을 했지만 여전히 재미를 느낀다고 말한다. 연기 말고는 다른 직업을 생각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에게 배우라는 직업은 천직과 같다.

배우 25년차… 연기, 여전히 흥미로워

최근 종영한 드라마 '라스트'는 이범수에게 도전 심리를 자극한 작품이었다. 웹툰 원작의 작품에 처음 출연했다. 그러나 원작을 보지 않았다. 그가 맡은 곽흥삼이라는 인물을 순수하게 창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원작이 훌륭하다고 들었기에 오히려 더 안 봤어요. 실제 인물을 그리는 게 아니기에 순수 창작에 가깝게 접근했죠. 흥삼은 서울역에서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온 인물이라서 표현에 정답이 없어요. 그가 살아온 역사를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인물의 성격을 담았죠. 내가 그라면 어떻게 했을까에 충실하면 그것 또한 살아있는 연기니까요."

'라스트'는 유독 액션 신이 많았다. 불혹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이범수는 몸을 사리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그림이 나오도록 노력했다.

"더 강한 액션을 하고 싶었어요. 펜트하우스 신에서는 눈에 피도 넣었죠. 흥삼이 타깃인 상황이니까 가장 많이 맞아야 한다고 의견도 냈고요. 액션 신들은 영화와 비교해도 손색 없다고 생각해요. 배우들과 스태프 모두 잘 해줘서 고마워요. 이들과의 추억이 행복했습니다."

도전을 마친 이범수는 현재 기획사를 만들어 배우로서의 철학을 담고 있다. 아카데미를 설립해 배우를 양성하는 등용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작가 '테스피스'의 이름을 따온 것도 그 이념과 부합한다. 테스피스는 문헌에 기록된 최초의 배우다.

웹툰 원작 안보고 순수 창작 접근
강렬한 액션 위해 눈에 피 넣기도

연기, 인간 탐구하는 최고의 학문
누군가의 인생도 바꿀 수 있어

YG·JYP처럼 배우 양성소 만들고 파

"배우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방향성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테스피스의 이름을 가져왔어요. 아카데미를 세운 건 학창시절부터 가졌던 생각에서 출발한 겁니다.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이죠. 그 길이 정말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을 양성하고 현장에 등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YG나 JYP 같은 음반 기획사가 신인들을 미리 발굴해 트레이닝 시켜서 스타로 만들 듯이 말이죠."

인생의 절반 이상을 연기와 살아온 이범수는 이제야 연기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말한다.

"연기야말로 인간을 탐구하는 최고의 학문이죠. 인간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여전히 흥미롭습니다. 좋은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듯이 좋은 연기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배우로서의 자부심을 느껴요."

/하희철 기자 bbuheng@metroseoul.co.kr

가을에 만나는 이사오 사사키

콘서트 '이터널 선샤인' 4일 개최

감성적인 음악으로 잘 알려진 피아니스트 이사오 사사키(사진)가 서울에 다시 온다.

이사오 사사키는 오는 4일 오후 5시 LG아트센터에서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이름으로 콘서트를 연다.

이사오 사사키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연주음악 피아니스트'로 손꼽힌다. 1999년 첫 앨범 '미싱 유(Missing You)'로 한국 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금까지 13장의 정규앨범을 발매하며 꾸준한 공연으로 한국 팬과 만날 수 있다.

한국과의 인연도 깊다.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故) 이수현을 위한 추모곡을 작곡했으며 영화 '봄날은 간다'의

음악 작업에도 참여했다. 구혜선의 소품집 '숨'에도 편곡과 피아노 연주로 함께 했다.

이번 공연은 미셸 공드리의 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원제이기도 한 '깨끗한 영혼에 비추는 영원한 햇살'을 주제로 담았다. 따뜻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피아노 선율을 닮은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이름만 떠올려도 행복한 첫사랑의 추억, 혹은 눈물나는 아련한 기억이 될 시간 속으로 안내하는 음악을 선사하는 자리다. 공연 예매는 LG아트센터, 인터파크, 스톰프 스토어 등에서 가능하다. (문의: 스톰프뮤직 02-2658-3546)

/장병호 기자

FashionN
매주 목요일 밤 9시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6
더 강력해진
그녀들이 온다!
지나 / 아이비 / 황승언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쇼박스, 해외진출 속도

美 블룸하우스 등과 손잡아

쇼박스가 해외 제작사와 함께 5년간 스릴러·공포영화 6편을 내놓는다.

쇼박스 측은 21일 블룸하우스 프로덕션, 아이반호 픽쳐스와 스릴러·공포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블룸하우스와는 한국 장르영화를 기획·개발하고, 국내 개봉을 위한 제작·마케팅·배급은 쇼박스가, 아이반호 픽쳐스는 투자를 맡는다.

유정훈 쇼박스 대표는 "국내 신인 작가, 감독 발굴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침체된 한국 스릴러·공포영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계약으로 국내 능력있는 제작자, 작가, 감독이 할리우드로 진출해 전 세계 관객과 만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쇼박스는 3월 중국 화이브라더스미디어주식유한공사와 3년간 6편 이상의 한·중 합작 영화를 제작하는 독점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예진 기자 green@

삶에 대한 깊은 의지를 마주하다

film review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마션

화성에 남겨진 생물학자의 생존기 과학적 지식으로 설득력 부여

/이십세기폭스코리아

우리는 살고 있다. 매일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는다. 생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에게 삶이란 고민해볼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신작 '마션'을 보면서 떠오른 것은 바로 이 '삶'에 대한 생각이었다.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가. 물론 영화는 이런 철학적인 문제의식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는다. 불가능한 생존기를 그럴싸하게 그려낸 잘 만들어진 SF영화일 뿐이다. 그럼에도 영화는 관객에게 삶의 의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를 남긴다. 영화를 보는 동안 벅차게 뛰어오르는 심장박동과 함께 말이다.

영화는 NASA의 화성 탐사대 이야기다. 예정대로 탐사를 진행하던 이들은 뜻하지 않은 모래폭풍으로 갑작스럽게 탐사를 철수하게 된다. 순식간에 덮친 폭풍우 속에서 생물학자 마크 와트니(맷 데이먼)가 실종된다. 남은 탐사대원들은 마크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우주선에 몸을 싣는다.

화성에는 물도 산소도 없다. 지구의 생명체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별이다. 이곳에서 살아남기란 불가능과도 같다. 단지 식량 때문만은 아니다. 불안·고독·두려움·절망 등 심리적 고통과도 마주해야하기 때문이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홀로 정신을 차린 마크도 처음 접하는 것은 바로 이 절망이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삶의 의지를 부여잡는다. "나는 여기서 죽지 않아." 끊임없이 되뇌는 이 단호한 한 마디가 마크로 하여금 불가능한 생존을 가능하게 만든다.

동명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는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득력을 부여한다. '그래비티' '인터스텔라' 등에서 보여준 간접적인 우주 체험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마션'의 가장 큰 매력은 영화를 가득 채우고 있는 긍정과 낙관의 정서다. 그 중심에 마크라는 캐릭터가 있다. 그는 자신을 버리고 간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며 오히려 위로를 건넬 정도로 긍정적인 인물이다. 그런 마크가 살아남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스스로 잊고 지냈던 삶의 의지를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붉은 화성의 너른 대지 위를 로버를 타고 홀로 이동하는 마크의 모습은 경이롭다. 동시에 우주라는 공간이 얼마나 고독한 곳인지 생각하게 된다. 마크는 이 고독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는 짧은 말 한 마디로 답한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살아서 돌아오게 된다." '마션'은 SF 장르 속에 삶에 대한 깊은 긍정과 의지를 담은 작품이다. 노장 감독이 뒷짐을 진 채 넌지시 건네는 인생의 조언 같기도 하다. 12세 이상 관람가. 10월 8일 개봉.

TV 하이라이트

친정식구들에게 점수 따기

◆ JTBC '님과함께-최고의사랑'

오후 9시40분

김범수는 안문숙의 친정식구를 자처하는 이경실, 이경애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 친정식구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보지만 오히려 '남자 답지 못하다' '적극적으로 표현해라' 등의 지적과 함께 구박만 받는다. 이에 굴하지 않고 김범수는 안문숙의 남편으로 합격점을 받기 위해 적극적인 스킨십을 시도하면서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안문숙은 남편의 노력에 감동 받는다.

/정리=하희철기자 hhc@

◆ O tvN '어쩌다 어른'

오후 8시

어른이 되어도 답을 내릴 수 없는 삶. 뇌과학자 김대식은 뇌 속에 그 답이 있다며 삶의 공식을 공개한다. 뇌과학 속에 숨은 삶의 의미를 찾아본다.

◆ KBS2 '비타민'

오후 8시55분

65명의 의사들과 'ㄱ'부터 'ㅎ'까지 키워드를 선정한다. 이를 토대로 다이어트, 민간요법 등 건강한 삶에 대한 지식을 망라한 '백의사전'을 만들어본다.

◆ 채널A '구원의 밥상'

오후 11시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3명이 겪고 있는 '당뇨'의 모든 것을 파헤쳐본다. 46년간 당뇨와 싸우면서도 합병증 한 번 걸린 적 없는 탤런트 김성원이 비법을 밝힌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OCN series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남도지오그래피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행복한 지도 (재) 10:30 건군 6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11:10 다큐 공감 (재)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재)	05:00 MBC 뉴스 05:10 건강 플러스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내 딸, 금사월 (재)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건군 제6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11:10 SBS 생활경제 11:30 웃찾사 스페셜	06:00 식톡락 테라피 힐링의 품격 (재) 07:00 이야기 보따리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유자식상팔자 (재) 10:15 히든싱어 4 커밍순 특집 도플싱어 가요제 (재) 11:55 비정상회담 (재)	05:50 리얼다큐 숨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엔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05:30 코미디 빅리그 꿀잼 에디션 (재) 06:2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8:10 집밥 백선생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수요미식회 (재) 11:50 집밥 백선생 (재)	05: 20 서유기 리턴즈 07:20 과거를 묻지마세요 08:30 베이츠모텔 시즌2 10:20 신의 퀴즈 시즌2 11:20 무비스토커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KF–16 알래스카에 날다 (재) 15:00 홋카이도 강제징용자 70년만의 귀향 16:00 오늘의 경제 16:10 추석특집 세계 미식대전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2:05 인간극장 스페셜 13:50 야생일기 (재) 14:10 생활의 발견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40 동물의 세계 17:00 추석특집 한식, 세계를 품다	12:00 MBC 정오뉴스 12:20 엄마 (재) 14:30 똑?똑! 키즈스쿨 15:00 MBC 뉴스 15:10 마법천자문 15:40 헬로키즈 싸이걸스 (재)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자기야–백년손님 (재) 14:00 문화가중계 (재) 15:00 SBS 뉴스 15:10 SBS 이슈 인사이드 16: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바이클론즈	13:1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3:10 두번째 스무살 (재) 15: 50 집밥 백선생 (재) 17:10 SNL 코리아 (재) 17:50 코미디 빅리그 2015 3쿼터 가을특집 썸남 썸녀 (재)	12:30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2 14:10 컨티넘 시즌2 15:00 CSI NY 시즌8 16:40 베이츠모텔 시즌2
18:00 6시 내고향 18: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9:00 KBS 뉴스 7 19:30 한국인의 밥상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KBS 다큐 1 23:00 KBS 뉴스라인 23:40 특집다큐 숲의 재발견 24:30 아시아 영화의 힘	18:00 KBS 글로벌 24 18:30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19:50 다 잘될거야 20:30 생생정보 20:55 600회 기획 비타민 22: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23:10 해피 투게더 24:4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그녀는 예뻤다 23:10 경찰청 사람들 2015 24:30 MBC 뉴스 24 24: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2:00 용팔이 23:15 자기야–백년손님 24:35 나이트라인	18:30 유자식상팔자 (재) 19:55 JTBC 뉴스룸 21:3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22:50 썰전 24:15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MBN협동프로젝트 신 부자수업 21:45 리얼다큐 숨 2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4:20 아궁이 (재)	19:20 수요미식회 (재) 20:40 젠틀맨리그 21:40 어쩌다 어른 (재) 23:00 슈퍼스타K7 24:40 집밥 백선생 (재)	18:20 주먹이 운다 20:20 컨티넘 시즌2 21:10 모티브 22:00 빅뱅이론 시즌8 22:55 레이 도노반 시즌2 23:50 정조암살 미스터리 8일

韓 농구, 강호 이란과 격돌

FIBA 아시아선수권대회

오늘 준준결승전서 맞불 이기면 올림픽 예선 진출

29일 중국 후난성에서 열린 제28회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선수권대회 결선리그 F조 카자흐스탄과의 경기에서 한국의 최준용이 덩크슛을 하고 있다. /FIBA 공식 홈페이지 제공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이 아시아 최강 이란을 상대로 제28회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선수권대회 4강 진출을 다툰다.

김동광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일 오후 3시30분(한국시간) 중국 후난성 창사에서 이란과 준준결승을 치른다. 이날 경기에서 이겨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최종예선 진출권을 얻게 된다. 이번 대회 2~4위 팀은 최종예선에 나가게 되고 우승팀은 올림픽 본선에 직행한다.

이란은 명실 공히 아시아 최강이다. 최근 네 차례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세 번이나 정상에 올랐다. 미국 프로농구(NBA) 출신 장신 센터 하메드 하다디(218㎝)와 내외곽이 다재다능한 모함마드사마드 니카 바라미(198㎝), 중국 리그에서 활약하는 포인트가드 마흐디 캄라니(186㎝) 등이 팀 전력의 핵심이다. FIBA 랭킹도 17위로 28위인 한국보다 높다. 키 200㎝ 이상인 선수가 네 명이나 되며 이번 대회에서는 키 205㎝의 파워포워드 모함마드 하산자데 사베리의 활약도 돋보인다.

이번 대회 평균 득점에서 이란은 95.7점으로 1위, 한국은 79점으로 7위다. 특히 리바운드에서 이란은 50.5개로 1위, 한국은 34.8개로 출전국 16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일 정도로 높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이란을 79-77로 물리쳤지만 올해 8월 대만 존스컵에서는 46-77로 크게 졌다. 당시 국가대표였던 문태종(오리온), 김주성(동부), 오세근(인삼공사), 김선형(SK) 등 주축 선수들이 빠졌고 문성곤, 강상재(이상 고려대), 최준용(연세대) 등 대학생 선수들이 가세해 객관적인 전력에서 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종현(고려대)까지 전체 엔트리 12명 가운데 4명이 대학생으로 구성된 만큼 젊은 패기를 앞세워 이란과 맞붙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한국은 이란을 이길 경우 중국-인도 경기의 승자와 4강에서 맞붙게 된다. 중국이 인도를 꺾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란을 제압해도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다.

2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이 이란과 8강전부터 걸게 된 '가시밭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첼시·아스날 나란히 패배

챔피언스리그

바르샤, 레버쿠젠에 勝

30일 포르투갈 드라가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2차전 경기에서 포르투의 막시 페레이라(왼쪽)와 첼시의 아즈필리구에타가 볼경합을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잉글랜드의 첼시와 아스날이 2015-201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나란히 패배했다.

첼시는 30일(한국시간) 포르투갈의 드라가오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G조 2차전 포르투와 원정 경기에서 1-2로 졌다. 이로써 1승1패를 기록하며 조 3위로 밀려났다.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2승2무3패로 20개 구단 중 14위에 머물러 있는 첼시는 1-1로 맞선 후반 7분에 포르투의 마이콩에게 결승골을 내줬다.

F조의 아스날(잉글랜드)은 올림피아코스(그리스)에 2-3으로 져 2연패를 당했다. 1-2로 뒤진 후반 20분에 알렉시스 산체스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으나 불과 1분 만에 결승골을 내줘 무릎을 꿇었다.

리오넬 메시가 무릎 부상으로 빠진 E조의 FC바르셀로나(스페인)는 레버쿠젠(독일)을 2-1로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따냈다. /하희철 기자

스위스 검찰, 플라티니 회장 조사 확대 시사

FIFA관련 비리 혐의

2016년 2월 열리는 FIFA 회장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미셸 플라티니(사진)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 스위스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30일(한국시간) 영국 BBC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비리를 수사 중인 스위스 검찰이 유럽축구연맹 본부에 대한 수색과 미셸 플라티니 회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하엘 라우버 스위스 검찰총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플라티니 회장을 '참고인'과 '피고인'의 중간으로 수사했다"며 "(FIFA 비리)수사의 일부분으로 유럽축구연맹 본부에 대한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플라티니 회장의 비리 혐의는 지난 2011년 FIFA가 그에게 지급한 200만 스위스 프랑이다.

플라티니 회장은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진행한 일에 대한 대금을 재정상의 이유로 뒤늦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희철 기자

배상문 귀국 "병역법 조사 성실히 받겠다"

입대 전 프레지던트컵 출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배상문(29·사진)이 내달 8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미국과 인터내셔널팀간 골프 대항전 2015 프레지던츠컵에 참가하기 위해 30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다 2014~2015시즌을 마치고 10개월 만에 국내에 들어온 배상문은 입국장에서 "죄송스럽다"는 말로 첫 귀국 소감을 밝힌 뒤 "논란을 만든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

이어 "대회 전 스케줄을 보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정확한 수순을 밟아서 입대하겠다"며 군 입대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배상문은 "고통받는 시간도 있었고 골프에 집중할 수 없는 시간도 있었지만, 실망스럽지는 않다"고 올 시즌을 평가한 뒤 "어깨가 무겁지만, 입대 전 최선을 다하겠다"며 프레지던츠컵 출전 각오를 밝혔다.

배상문은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선발되는 10명의 선수 중에 뽑히지 못했으나 닉 프라이스 인터내셔널팀 단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 선수 중에는 유일하게 프레지던츠컵에 출전하게 됐다. 그러나 군 입대 연기 문제로 병무청과 행정 소송까지 벌이다 패소했으며 병무청의 귀국 통보를 어겨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 된 상태다. /하희철 기자

추신수(오른쪽)가 30일(한국시간) 미국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경기 1회말 홈런을 기록한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추신수, 21호 홈런포

한 시즌 최다 홈런 눈앞에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21호 홈런과 31번째 2루타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추신수는 3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을 기록하며 7-6 팀 승리를 견인했다. 시즌 타율은 0.275에서 0.276으로 올랐다. 올 시즌 최고 타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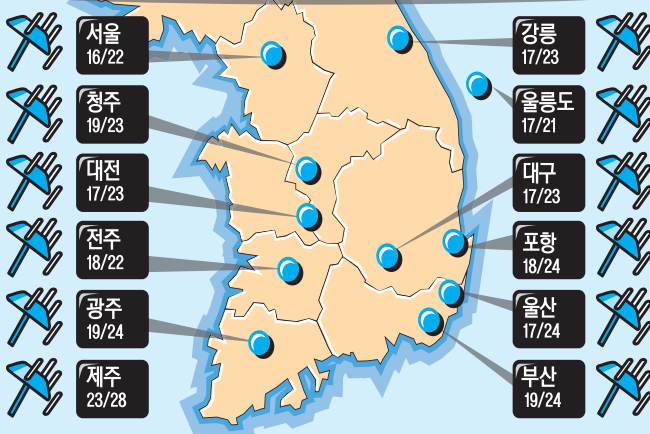
추신수는 0-2로 뒤진 1회말 무사 1루, 첫 타석에 들어서 디트로이트 왼손 대니얼 노리스의 시속 150㎞짜리 몸쪽 높은 직구를 받아쳤다. 동점 홈런이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홈런 1개를 추가하면 2010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기록한 한 시즌 개인 최다 홈런(22개)과 타이를 이룬다.

추신수는 4회 세 번째 타석에서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올렸다. 텍사스는 7-6으로 승리하며 3연패를 끊었다.

날씨

10/1 목 일출시각 06:27 일몰시각 18:1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6					2	4
				4				5
	2	1	8		3			
	9				4			
8				6				9
			5				7	
			6		8	7	4	
1				9				
3	8					9	1	

1			9				3	
6	2					7	4	
				8		6		9
			7		3	5		
			1	2	9			
		3	6		8			
2		8		1				
	9	6					8	4
	5				4			2

스도쿠 정답

5	3	6	9	7	1	8	2	4
9	7	8	2	4	6	1	3	5
4	2	1	8	5	3	6	9	7
7	9	5	1	3	4	2	6	8
8	1	3	7	6	2	4	5	9
6	4	2	5	8	9	3	7	1
2	5	9	6	1	8	7	4	3
1	6	4	3	9	7	5	8	2
3	8	7	4	2	5	9	1	6

1	8	4	9	6	7	2	3	5
6	2	9	5	3	1	7	4	8
5	3	7	4	8	2	6	1	9
8	1	2	7	4	3	5	9	6
4	6	5	1	2	9	8	7	3
9	7	3	6	5	8	4	2	1
2	4	8	3	1	9	6	5	7
3	9	6	2	7	5	1	8	4
7	5	1	8	9	4	3	6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sn't it too showy for the first date?

A: Help me out!
B: ?
A: Check this out.
B: It looks WOW!
A: I searched through my closet all day to find it.
B: Haha. So, who's the lucky guy?
A: Hyun. I'm going out with him tonite.
B: Hyun? Hyun, the hot lawyer????
A: Correct.
B: Awesome!!!
A: So, how do you like it?
B: Nice.
A: Uhmm… isn't it too showy for the 1st date?
B: Personally I don't think it's too much.
A: Maybe I should get a 2nd opinion.

첫 데이트인데 너무 드러내는 거 아냐?

A: 도와줘!
B: ?
A: 이거 좀 봐.
B: 정~말 멋.진.데.!
A: 함 봐봐. 그거 찾느라 하루 종일 옷장을 뒤졌어.
B: 하하. 그 운 좋은 남자는 누구?
A: 현이야. 오늘 밤 그와 데이트가 있어.
B: 현? 그 섹시한 변호사 현 말야?
A: 정답
B: 대박!!!
A: 그니까, 그 옷 어때?
B: 멋져.
A: 첫 데이트인데 너무 드러내는 것 같진 않고?
B: 개인적으론 과하다 생각 안 해.
A: 딴 사람 의견도 들어봐야겠다.

* tonite: tonight의 약자
* get a 2nd opinion: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궁합에 100% 의지 말고 서로 배려하세요

대전안양 여자 80년 7월 17일 양력 1시 50분
남자 75년 6월 9일 13시 34분

Q 안녕하세요, 지하철 자주 타던 때 늘 관심 있게 읽어왔습니다만 제 상담신청은 이제서야 해봅니다. 그동안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남자친구를 만나더라도 결혼 생각이 크게 없었고 공부와 일에 매진해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제 앞길도 보이는 듯해 결혼 생각이 들고 나이가 있다 보니 배우자를 만나는 게 불가능 한건 아닌지 걱정도 생깁니다.
지금 좋은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의 인연이 결혼까지 이어질지 배우자로서의 인연이 없다면 제 결혼 운이 있는지 언제쯤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릴지 알고 싶습니다.

A 어떤 선택에서든 각각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삶을 개선시키려는 노력과 의지로 해결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사주상담에서 이성적인 사고나 조언 등이 각각의 삶을 얼마나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부부사이가 악화되어 종체 예전과 같은 애정을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모호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사랑하도록 노력해보세요.' 등 전문가의 조언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조언은 하는이도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에서 남녀가 서로 '잘 만나면 깨가 서 말이고 잘못 만나면 눈물이 서 말'이라는 옛 속담이 있지요. 우선은 형충살(刑沖殺)의 기운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귀하는 늦추다보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는 구조임을 미리 아십시오.
궁합이 좋다고 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나쁘다고 한 궁합이 백년해로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궁합을 100% 의지 할 수 없는 것은 남녀 서로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여 개성이 다르고 특성이 다른 남남끼리 만나서 결혼하여 화합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믿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인내함이 인생해로의 요건이 됩니다.
남 보기에 겉으로 불화 속에 사는 부부가 이혼이나 이별 없이 백년해로 하는 것은 궁합은 나빠도 그 부부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이별 이혼수가 없기 때문이며 우여 곡절을 겪으면서도 인내하고 견뎌내는 노력이 있어서 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주팔자에서 배우자궁과 애정궁이 좋은 사람은 겸허한 자세로 또는 불길한 사람은 배전의 노력으로 참된 삶을 추궁해야 하며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1일 (음 8월 19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일의 성과가 태양처럼 빛납니다. **60년생**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72년생** 다 된 일 망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세요. **84년생** 새로운 일에는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49년생 이익이 넘치고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1년생** 기쁜 일이 생깁니다. **73년생** 용돈 이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85년생** 고민이 있으면 혼자는 안되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50년생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62년생** 업무처리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것 입니다. **74년생** 뒷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86년생** 흥정을 하면 잘 성사됩니다.

51년생 대하기 거북하던 상대와 잘 접목됩니다. **63년생** 주위 상황이 호전됩니다. **75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세요. **87년생** 일거리가 밀려 매우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52년생 당신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64년생** 당신은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76년생**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88년생** 배움의 기회가 있으면 꼭 잡으세요.

53년생 베풀면 큰 이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65년생** 데이트 신청뿐 아니라 프로포즈를 받기도 합니다. **77년생** 믿었던 사람이니 만큼 실망도 큰 법입니다. **89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54년생 끝이 없고 갈이 분명치 못합니다. **66년생** 뜬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짐과 같습니다. **78년생** 웬만하면 만족하고 진행하세요. **90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친구와 다투게 됩니다.

55년생 언행을 조심하도록 하세요. **67년생**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79년생** 근심을 풀어버리세요. **91년생** 운은 좋은 시기를 만났으나 마음이 심란합니다.

56년생 남들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68년생** 깊이 개입 하려 들면 어려워집니다. **80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깁니다. **92년생**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바로 복이 되어 옵니다.

57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69년생** 사랑은 갈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81년생**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보이기 바랍니다. **93년생** 활기차고 평온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58년생 오랫동안 노력한 대가의 빛을 보게 됩니다. **70년생** 부부의 선물 등 서비스가 좋은 날입니다. **82년생** 반드시 기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94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59년생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71년생** 인간관계를 조심 하세요. **83년생** 동서 양방에 일을 구하나 뜻을 이루기는 어렵겠습니다. **95년생** 뜻대로 이뤄지기 어렵겠습니다.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문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

김필수의 차 이야기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미국 환경청에 의해 지난 6년간 폴크스바겐 중저가 모델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정할 수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각되면서 시작된 디젤차량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폴크스바겐 본사는 의심되는 차량이 1100만대가 넘는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회장이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독일 정부는 물론 영국 등 각국에서 자체 조사에 나섰고 폴크스바겐 이외의 다른 메이커의 의심을 사면서 조사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클린 디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고 심지어 디젤엔진에 대한 암울한 미래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의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언급할 정도이다. 디젤차량 시장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던 유럽 시장은 물론이고 이제야 본격적으로 디젤차량 시장이 열리고 있는 미국의 입장도 생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디젤 차량 선호지역인 유럽의 경우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 등 노후 디젤차에 대한 제한 구역 설정 등 이른바 'LEZ(Low Emision Zone)'에 대한 강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환경규제도 눈여겨 봐야 하고 전통적으로 가솔린 기반의 국가인 미국은 이제야 승용디젤 차량 시장이 열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워낙 디젤에 부정적인 시각이 컸으나 최근 클린 디젤로 무장한 유럽형 승용 디젤 차량이 진출하면서 자국 메이커와의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시장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전체 차량 중 과반이 디젤차량이고 수입차 중 약 70%가 승용 디젤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폴크스바겐 등 독일차량이 70%를 넘을 정도로 독과점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검사기준에서 예전의 추상적이고 편법이 작용하던 관행에서 객관성이 커지고 투명도가 높아진 제도와 법적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 미국식의 징벌적 보상제는 아니더라도 의미 없는 형식적인 벌금이 아닌 판매중지 등 강력한 제재 방법 구상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둘째로 추후 배기가스 저감장치 강화로 비용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즉 디젤 차량에 대한 단순한 선호가 아닌 어려운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무작정 선호하던 관행에서 여러 가지 고민 사항도 커지면서 디젤 차량 위축은 점차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작년부터 공청회를 열고 있는 'LEZ'제도 구축으로 노후된 디젤 차량의 대도시 진입을 차단하는 제도 정리도 빨라질 것이다. 특히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의 강화도 예상할 수 있다.

소비자 연비 기준의 단순한 선호 환경에서 환경세 등 부담도 커지면서 구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디젤차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어느 때보다 커진다는 것이다.

셋째로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본 토요타의 강력한 가솔린 기반의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시장 점유율을 늘릴 것이다. 전기차 역시 기존의 전위부대 역할에서 주력 기종으로 시장 진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 등도 가세할 것이며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세계 자동차 메이커의 양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AAA'

社說

북한은 언행을 신중히 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북한이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29일 대변인 담화라는 형식을 통해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비난한 것이다.

북한은 "남조선집권자가 유엔 무대에서 또다시 동족대결 망발을 늘어놓았다"면서 '얼빠진 소리'라거나 '치사한 넋두리'라는 등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박 대통령의 연설에 비난을 퍼부었다. 나아가서 "모처럼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북한은 주장했다. 사실상 여차하면 이산가족 상봉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위협한 셈이다.

북한이 왜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연설은 결국 북한에게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라는 당부 외엔 아무것도 없다. 이미 이란도 서방과의 원만한 타협에 도달했다. 이란과 서방국가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최대의 갈등요인이 해소된 것이다. 북한도 이런 전례에 유의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개발에 힘쓰라는 것이 박 대통령의 강조사항이다. 같은 민족으로서 간절한 호소에 가까운 것이다. 북한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흡수통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박 대통령 연설을 비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까지 위협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이 보기에 박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면 되지 이토록 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한은 지난 8·25 고위급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와 타협을 도모하기로 했다. 첫 결실로 이산가족 상봉도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설사 견해차이가 있더라도 절제된 언어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북한이야말로 모처럼 형성된 대화분위기를 망치지 않도록 언행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냄새'나는 관세청의 면세점 의혹

기자 수첩
김 성 현
<유통부>

관세청(청장 김낙회)이 면세점 입찰에 관해 여러 의혹을 안고서 이달 서울 3곳, 부산 1곳 등 시내 면세점 입찰을 또 다시 진행한다.

여러 가지 의혹이 쌓여있기만 할 뿐 어느 것 하나 해소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조차 관세청은 '비밀유지'를 근거로 어떠한 의혹도 해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시 특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지난 2월 관세청은 제주 면세점 특허기간 만료(3월 21일)에 따른 면세점 후속 사업자로 신라와 부영을 탈락시키고 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 롯데면세점 선정 후인 4월에는 면세 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을 변경한다.

기존 기준은 관리능력이 전체점수의 30%, 경영능력이 25%였지만 이를 관리능력 25%, 경영능력 30%로 변경했다.

경영능력은 기업의 재정을 보고 평가한다. 한마디로 자본이 많은 곳,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다.

올 7월 1일 국세청은 면세점 발표를 앞두고 심사위원 선정 기준도 변경했다.

기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특허 심사위원은 관세청장이 임기 2년의 심사위원 집단 50명을 위촉하고 이중 심사위원을 선임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변경된 심사위원 선정 기준은 관세청장이 심사 때마다 어떠한 제약없이 심사위원 전원을 직접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7월 면세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8명은 기존 심사위원 집단이 아닌 모두 관세청장이 새로 선임한 인물이다.

이 뿐만 아니다. 관세청은 롯데면세점의 확장 이전을 규정까지 어기며 밀어준 의혹, 면세사업자 심사과정이 이뤄진 인재개발원 CCTV영상자료 유실 의혹, 면세사업자 입찰자 정보유출 의혹 등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 면세점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사업이다. 실제 면세점 업계 1·2위인 롯데와 호텔신라가 전체 면세점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특혜를 준다면 최소한 근거라도 명확해야 하지만 이미 대기업의 전유물이 된 면세사업은 선정 과정에서부터 냄새가 난다.

이달, 냄새나는 면세사업자 선정이 또 시작됐다.

친권행사자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다면?

생활 법률

A씨는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아이의 양육자와 친권행사자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씨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 연락도 거부한 채 잠적하다시피 한 남편. A씨가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해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이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A씨가 아이를 데려오려면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남편처럼 인도이행의무를 거절하고 있다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간접강제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게 하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유아를 인도할 의무를 지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붙잡아 가두는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고,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직접강제 행사는 유아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유아 자신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직접 강제에 의한 방법이 사용된다. /연미란 기자 actor@

인사

◇국방부 △신규 임용▷인사기획관 이황규
◇교육부△일반직 고위공무원▷대변인 이승복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 김재금
◇병무청△부이사관 승진▷대변인 조규동 ▷운영지원과장 김용학
◇조달청△부이사관 승진▷청장실 비서관 류재일 ▷우수제품구매과장 김홍창△서기관 승진▷정보관리과 정진성 ▷우수제품구매과 김병조
◇공정거래위원회△과장급▷경쟁심판담당관 이순미
◇한국무역보험공사△전보<부서장급>▷조사부장 강신호 ▷비서팀장(부장대우) 박진식 ▷현장경영추진실장 박재형 ▷경기북부지사장 오주현 ▷경남지사장 원용식 ▷광주전남지사장 민경국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파견 부장 방종열<팀장급>▷심사실 책임심사역 김기래 ▷프로젝트금융총괄부 책임심사역 송후경

I 소비자상담실 I 080-547-3571 I 세븐에이트는 가까운 약국, 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